

신 군 자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방안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 과

박 현 숙

직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방안 연구

신 군 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 년 5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 과

박 현 숙

인 준 서

박현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인생의 긴 여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저 혼자 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 많은 사랑과 격려에 대해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자상하게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신군자 지도교수님, 심사를 해 주신 안관수 교수님, 곽윤숙 교수님, 유향산 교수님, 김경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모든 일을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전현심 선생님, 최수경 선생님, 장희양 선생님, 조혜경 선생님, 이희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애정 어린 눈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육학과 선후배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위해 귀한 수업 시간 중에도 기꺼이 설문에 응해주신 학생들,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면담에 응해주신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의 운영자 선생님, 졸업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논문이 현재 공부하는 학생과 졸업생들 그리고 미래에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어 그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나 보답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머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시어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마음의 힘이 되어주는 남편 김종현, 자신의 논문쓰기에 도 바쁘는데 컴퓨터에 관한 모든 문제점들과 편집을 귀찮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는 동생 창욱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힘이 되어 나를 주관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두 분의 열정적 삶을 본받을 것입니다.

논문을 기대하셨건만 이제는 하느님 곁에서 이 논문을 보시고 기뻐하실 아버지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5년 여름
박 현 숙 드림

논문 개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산업구조는 지식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경제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고, 직무의 성격 및 수준이 고도화 되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새롭게 창출되기 때문에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제는 중요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세, 학습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권은 기본권리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5.31 교육개혁의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누구나, 어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트인 열린 교육체제의 구축방안이 마련되어(교육개혁위원회, 1995) 학교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점은행제도는 고등교육 단계의 대안적 학위 수여를 통해 단순히 학위만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이 아니라 학력과 실력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의 실현의 한 방편이 될 것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몫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학점은행제의 현황을 분석한 후 학점은행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관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학점 은행제 운영 실태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학점은행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점은행제의 직업교육 분야 내실화를 위해 학점 은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점 은행제 참가 유형,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 기대 정도와 만족도,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및 희망사항, 개인배경을 내용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학점 은행제를 통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8개 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582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점 은행제 운영자 6명과 이미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3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점은행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 다음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법규의 상호 연관성 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수강생 지원 및 기술계 학원에 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지원, 민간자격을 공인 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 급수에 관한 세부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학위취득 기관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요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방학기간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양과목 이수를 위한 대학의 다양한 수업 시간대 편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수업시간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주말과 야간 등의 다양

한 시간대의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격대학에서의 학점이수도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대학의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제도 도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법률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의 상호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업능력 분야와 직업 능력 분야에서 각각 단일 기준을 세우고, 양 분야의 기준에 의하여 학업과 직업능력 분야가 어떻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점 은행제 관련 교육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점은행제도를 지원할 때 학점 은행제는 안정적으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학점 은행제에 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매체 즉 신문, 방송, TV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평생고등교육과 직업교육.....	6
1)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6
2) 형식-비형식교육 시스템.....	9
3) 교육과 직업의 연계.....	11
4) 경험과 학점의 연계.....	17
2. 평생고등교육과 학점 은행제.....	19
1) 원격형 고등교육.....	20
2) 비전통형 학위취득제.....	22
3. 분석의 틀.....	28
III.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 현황	30
1. 한국.....	30
1) 운영체계.....	30
2) 운영 현황.....	33
3) 학점 은행제 관련 법률.....	40

2. 외국 사례	45
1) 미국	45
2) 영국	60
3) 뉴질랜드.....	67
4) 시사점.....	74
IV.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의 운영 실태분석(I) : 설문 조사.....	79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79
1) 조사대상	79
2) 조사도구.....	80
2. 자료 처리 방법.....	80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4. 조사 결과 분석.....	82
1) 참여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	82
2) 학점 은행제 참여 동기	84
3)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	85
4) 학점 은행제 참여시 교육비 부담 주체	87
5) 프로그램을 선택에 영향을 끼친 매체.....	88
6) 학점 은행제 참여의 기대 영역	89
7)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	96
8)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	100
9) 앞으로 받고 싶은 학점 은행제 관련 학습 내용.....	101
10)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103

V.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의 운영실태분석(II): 심층면담.....	106
1. 운영자 면담	106
1) 대상.....	106
2) 면담내용.....	107
2. 졸업생 면담	119
1) 대상.....	119
2) 면담내용.....	119
VI. 결 론.....	128
1. 요약.....	128
2. 결론 및 제언.....	132
3.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 방안.....	136

참고 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II-1> Trow의 고등교육체제 단계에 따른 변화	7
<표 II-2> 산업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와 방해요인	15
<표 II-3> 독학사 시험	23
<표 II-4> 전통적 학교 중심 교육체제와 학점 은행제	27
<표 III-1> 학점 은행제 학위수여자 인원수.....	30
<표 III-2>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	31
<표 III-3> 유형별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34
<표 III-4>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고시	35
<표 III-5> 학사학위 종류와 세부 전공	37
<표 III-6> 전문학사 종류와 세부 전공	38
<표 III-7> 연도별 전문학사 학위수여 현황.....	39
<표 III-8> 연도별 연령별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현황	40
<표 III-9> 국가자격체제 등급과 고등교육자격체제	61
<표 III-10> 국가자격인정체제 자격인정 신청 기준.....	72
<표 IV-1> 설문조사 대상 기관.....	79
<표 IV-2> 설문지 문항 내용	80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표 IV-4>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	83
<표 IV-5>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	84
<표 IV-6>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	86
<표 IV-7> 학점 은행제 참여시 교육비 부담 주체.....	87

<표 IV-8>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끼친 매체	88
<표 IV-9> 학업이나 업무능력개선	90
<표 IV-10>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90
<표 IV-11> 여가선용	91
<표 IV-12> 구직활동(취업)	92
<표 IV-13> 사회변화에 적응.....	93
<표 IV-14> 교양 함양.....	94
<표 IV-15> 사회활동에 참여.....	94
<표 IV-16>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	95
<표 IV-17> 인간관계 개선	96
<표 IV-18> 교수방법	97
<표 IV-19> 교육시설 및 장비	98
<표 IV-20>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	99
<표 IV-21> 교육비 수준	100
<표 IV-22>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	101
<표 IV-23> 앞으로 받고 싶은 학점 은행제 관련 학습 내용.....	102
<표 IV-24>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1순위.....	103
<표 IV-25>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2순위.....	105

그림 목차

[그림 II—1] 연구 분석의 틀.....	29
[그림 III—1] NQF와 고등교육자격체계의 연계.....	64
[그림 VI—1]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 방안	13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세계각국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불가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적 자본으로써의 인간개발을 주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구조는 지식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경제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고, 직무의 성격 및 수준이 고도화 되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OECD에서는 이러한 인력고도화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OECD, 1999). 요컨대 사회는 점차 지식기반 경제 및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생에 걸친 학습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학습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나영선, 2003:6).

지식기반사회란 학습의 양이 곧 삶의 질 및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가진 사회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인적자원 개발과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은 절대적이다. 평생교육은 연령과 계층, 대상, 여건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차원을 넘어 다양한 평생교육기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학교를 통해 달성되지 못했다면 반드시 성인교육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므로

어느 누구도 교육소외계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기초 중등교육 수준을 넘어 고등교육수준의 단계까지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기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된 고등교육 평생교육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본다.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장(場)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권은 기본권리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중심을 두는 교육체제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모든 공간을 학습조직화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 교육과 직업훈련과의 통합,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시스템 구축,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성 확보, 기업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학습조직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5·31 교육개혁의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누구나, 어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트인 열린 교육체제의 구축방안이 마련되어(교육개혁위원회, 1995) 학교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점 은행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점 은행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개인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학습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학점 은행제도는 고등교육 단계의 대안적 학위 수여를 통해 단순히 학위만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아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이 아니라 학력과 실력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소외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장치를 제공

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여 학력격차에 의한 지식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학점 은행제도를 통하여 개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연령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급속한 기술변화 등에 따른 직업의 주기적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추구해야 할 이념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와 학습자들의 요구에 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학점 은행제의 현황을 분석한 후 학점 은행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제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직업교육을 위한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학점 은행제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에 관하여 분석한다. 학점 은행제의 직업교육 분야 내실화를 위해 학점 은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써 학점 은행제 참가 유형,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 기대정도와 만족도,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및 희망사항, 개인배경을 내용으로 조사·분석한다.

다섯째,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점 은행제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와 이미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여섯째,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효율적 운영방안 체제를 제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제한점이 나타났다.

양적인 연구를 위해 이 연구의 조사와 분석의 중요 대상이 되는 학점 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이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모든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직업교육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교육기관의 운영담당자의 협조가 가능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리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졸업생을 선별하였지만 실제 면담에 응한 졸업생의 전문학사 학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경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 연령과 직업경력에 따른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4. 용어의 정의

- 직업교육 – 직업교육이라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항에 의거하여 학

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으로 정의한다.

- 학점 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6434호)에 근거를 둔 학점 은행제는 학교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평생학습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고등교육과 직업교육

1)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오늘날 우리는 지식기반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평생 동안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면 세상살이에서 도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학교교육의 성과를 중시하는 학력중심의 인력 활용체제가 붕괴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명제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세계화의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평생교육 및 평생훈련체제를 수립하는 일이 된 것이다(이상오, 2002:171).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노동력의 중장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자원 개발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평생교육의 시대에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사회적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다(김형만 외, 1999:104).

Trow(1974)는 고등교육체제는 엘리트형-대중형-보편형의 3가지 유형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표 II-1>참조).

엘리트형 단계는 고등교육 해당 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재학생의 비율이 15%정도까지로 본다. 이 단계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는 한정된 소수의 특권이고, 대학의 기능은 사회 지배층과 전문인 양성에 둔다.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해당 연령층이 15%를 넘어 50%에 이르게 되면 엘리트형에서 대중형으

로 변화하게 된다. 즉,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엘리트형 고등교육체제보다 대규모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표 II-1> Trow의 고등교육체제 단계에 따른 변화

	엘리트형	대중형	보편형
해당 연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대학 재학률	15%까지	15-50%	50%이상
고등교육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자의 권리	만인의 의무
고등교육의 목적관	인간형성, 사회화	지식, 기능의 전달	새롭고 광범위한 경험의 제공
고등교육의 주요기능	엘리트 지배계급의 정신 및 성격 형성	전문화된 엘리트 및 사회지도자층의 양성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국민의 육성
주요 교육방법 및 수단	개인지도, 세미나 사제관계 중시	비개별적인 다수 대상의 강의, 정시제형	통신, TV, 컴퓨터, 교육기기 등 활용
학생의 진학 및 취학 유형	중등교육 수료 후 진학; 중단 없이 학습하여 학위취득. 낮은 탈락률	중등교육 수료 후 비직접적인 진학 및 일시적 취학정지; 탈락자 증가	성인, 노동학생의 진학; 직업경험자의 입학 증가
고등교육기관의 특색	동질성(공통의 기준을 가진 대학과 전문 분화된 전문학교)	다양성(다양한 수준의 고등교육기관, 종합제 고등교육기관의 증가)	고도의 다양성(공통의 일정기준 상실)

출처 : 차갑부(2002).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p.223.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대중형 고등교육 체제 하에서 고등교육 기회는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의 권리고 교육기회균등 실현이 더욱 요구되며,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자 육성뿐만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는 것에 둔다.

고등교육의 전체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의 재학률이 50%를 넘게 되는 보편형 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만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을 향유할 권리는 모든 국민의 의무로 인식되어 고등교육의 기회는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 육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형태와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증가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Knapper and Cropley, 2000:64-66).

이러한 성인학습자들은 전통적 학생과 다른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강좌가 개설되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보다 많은 탄력성을 요구한다. 성인학습자들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이며 융통성 없는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없으므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차갑부, 2004:155).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정규학생과는 다른 학습방식을 고안해 내야 하며 학문적인 것 보다는 실생활에 관련되는 것을 고안해야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UNESCO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OECD에서 세계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평생교육이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종료되는 한시적인 교육이어서는 안되고 학습자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시급해졌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육 개혁의 명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평생직업교육체제는 훈련의 영역에서 보다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게 되면서 마침내 1990년대 중반부터 평생교육은 평생직업교육훈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OECD, 1996c).

결국 평생학습사회의 선언과 함께 명실공히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히 성인대상의 교육영역에서 학점 은행제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등의 고등교육제도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새로운 기회창출이라는 개방성과 평등성의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2) 형식-비형식교육 시스템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형식교육을 대신하고 교육 중간에도 간헐적인 방법으로 일과 현장경험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이상오,2002:203). 이것이 순환교육을 가능하게 한 사교의 전환이 되었고 이러한 순환교육에 관하여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발표하였다(OECD, 1996b:88).

첫째, 학교교육과 자격증은 ‘최종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개인적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둘째, 계속교육기관에서의 커리큘럼은 어느 학교 단계에서 보다는 학습과 일 사이의 선택에 보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제3영역 교육기관에 보다 많은 성인들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융통성 있는 커리큘럼을 개방한다.

넷째, 형식교육 시스템에서의 ‘한시적 교육’ 개념을 지양하고 계속교육의 가능성을 중요시한다.

다섯째, 일과 교육경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1970년대부터 순환교육은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중요한 교육방법이며 장기적인 전략으로 주장되었다. 교육과 학습 사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유추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형성되고 마무리 되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맥락의 주요한 변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순환교육의 개념은 형식교육과 일 그리고 교육의 평생과정으로 해석되는 관계성의 일치를 강조함으로써 이는 역시 앞으로 교육의 기회가 학습자 개인의 전 생애 사이클에 걸쳐 개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훈련 영역간의 연계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OECD,1996c).

첫째, 오늘날 비형식교육의 영역은 형식교육에 못지않게 학습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들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양 영역은 매우 상이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으며, 각기 특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오늘날 세계와의 추세와 뉴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비형식 교육훈련 영역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

넷째, 지금까지 형식 교육과 비형식 영역간에 실질적인 연계를 시도한 일은 거의 없다.

다섯째, 형식교육의 대표 영역인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사회화 기능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21세기 평생학습의 시대를 맞아 점점 기초교육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위상과 역할을 잃고 있다.

여섯째, 오늘날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교육통합 시스템은 민간주도의 사회적 학습을 촉발시키는 믿을 만한 지표를 찾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영역에서부터 교육과 훈련의 영역을 통합하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우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통적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훈련 영역 간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통합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OECD,1996c).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은 바로 이러한 교육과 일의 상관관계의 변화와 발전양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학교에 가야만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를 떠나면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육편견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열린 평생교육의 시대는 요원하다. 특히 직업교육의 평생학습체제를 위하여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시스템은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통해 열린 체험학습의 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 직업의 연계

오늘날 학술 중심과 전문직업기술 중심 고등교육에의 참여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이 정보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중등교육 이하 단계의 이수자들보다 취업이 용이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이는 형식적인 차원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극비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OECD,1996b: 34). 즉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특히 21세기 시작을 전후로 형 설 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OECD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세계화, 무역개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규제 완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으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직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노동시장 재구조화는 근로자를 수시로 해고하고 충원을 할 수 있는 외적인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조직의 내부에서는 팀을 기반으로 한 일의 조직, 위계의 단축, 업무의 순환, 의사결정 권한의 하부이양 등을 통해 내적 유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재구조화는 근로자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영화, 1999:63).

최근 한 조사연구(주인중, 2001)에 의하면 교육과 훈련 특히 직업교육과 훈련 영역의 상호 연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204명)의 96.6%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인중, 2001:33). 이 조사연구에서는 현재의 여

건에서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성은 법적·제도적 기반과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며 미래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낙관하고 있다 (주인중, 2001:31).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육과 훈련의 연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제시한 법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그리고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질을 높이며,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동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직도 제도적 미비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 각 법령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연계내용을 제도화시키고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태화(2001)는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성 확립은 직업교육 훈련의 효율성, 효과성,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시대적 요청인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연계방안으로 수평적 차원, 수직적 차원 그리고 제도적 차원을 들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법적 장치에서는 이러한 연계를 허용하는 범위가 넓혀졌다고 하면서 적극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앞으로의 직업교육은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시해 오던 과

거의 직업교육과는 차별되고 특성화되어야 하며 교육과 직업의 연계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교육과 직업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교육과 직업의 연계형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무근, 1998:93-99).

첫째, 산업부분 요구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부응으로써의 교육과 직업의 연계이다. 교육과 직업의 연계는 일차적으로 산업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교육내용이 산업부문이나 직업세계의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도 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기관에서 직업세계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교육과 직업의 연계이다. 교육기관에서 학습자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의식화를 통해 자신의 생애계획에 비추어서 교육적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생활경험학습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한 교육과 직업의 연계이다. 성인들이 일터에서의 경험하는 것을 학습과정에 통합시킴으로써 성인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욕구를 강화시키고 직업능력은 강화될 것이다.

넷째, 학교와 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의 구축으로서의 교육과 직업의 연계이다. 직업교육에 관하여 학교는 공급자로, 산업체는 소비자로서의 기존의 역할분담을 비판하고, 직업교육에 대하여 산업체는 공동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산업체와 학교간의 파트너십의 구축으로 교육과 직업의 연계를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시설을 이용한 현장학습 실천 방안이다. 산업현장을 통한 직접적인 일과 교육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산업현장 대신 학교에서의 실습을 위한 시설을 더 내실화하고, 실습방법을 프로젝트에 의해 실행하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직무와 비슷한 학습경험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교육기반 산업시설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일과 동일한 학습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현장을 통한 학습은 현장이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학교측과 산업체 현장 측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을 학습시킬 현장지도자, 그리고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제공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체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여, 무엇이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자질인지를 규정하고 또 그것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에 입각한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에 관련되는 것으로 핵심적인 교육의 활동영역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진미석, 1997:51-52).

한편, 산업체들이 교육에 무엇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체들의 참여동기는 다음 <표 II-2>와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직업의 속성변화로 인해 물적 재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직업전환을 기대 받고 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생활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직장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시도한 연구보고서(강순희

외, 2000)에 의하면, 금융보험, 사무관리, 금속기계장비, 산업응용, 정보통신 분야 등 몇몇 훈련 직종을 제외하고는 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2000: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직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력수급에 기초하는 현장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구인-구직의 연계 효율성이 보장되는 맞춤형훈련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 기업체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는 직업훈련기관의 진로 상담이 개인과 기업체 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표 II-2> 산업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와 방해요인

요인 차원	동기(+)	방해요인(-)
경제적 차원	<직접적 동기> • 산업체에 필요한 장래 기술자 양성 • 잠재적 직원을 선정하는 비용의 감소 • 장래 인력확보(인력이 부족한 부문) <간접적 동기> • 미래고객(학생) 관리 차원 • 일반시민들에게 이미지 홍보 • 자체 직원들의 사기 진작	• 현장 내의 학생들의 지도감독비용 •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경제외적 차원	• 국가차원의 교육과 인력의 질 개선에 협조 • 지역사회봉사	•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내부적인 저항

출처: 진미석(1997). "교육과 산업체간의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7(1). 한국비교교육학회.p.56.

또한 교육 훈련에 임하는 태도 인식을 잘 계도하고 이러한 차원으로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 중 5.5%만이 동료 훈련생의 취업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53.9%는 동료 훈련생의 취업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평가한 것은 취업의지가 없는 훈련생들이 현행 훈련체제로 다량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정인수 외, 2000:78).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교육과 직업이 연계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야 하며, 직업훈련 전 단계부터 훈련생의 질적 조건이나 훈련분야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훈련 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진로안내와 상담이 실시되고 그 결과가 다시 직업훈련 전반에 환류(feedback)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자에게 적합한 훈련직종 분야를 결정하고, 이수 후 취업활동의 전략과 취업활동의 실패를 대비한 대책까지 포함된 개인별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단기적 시각이 아닌 생애 전체의 진로 발달계획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진로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이수자를 면접 조사한 연구보고서에는(이지연, 장창원, 1999:67-68)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520명중 29.6%(154명)가 훈련직종의 선택부터 훈련과정 이수까지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안내와 직업선택의 상담경험을 평균 2.52번 갖고 있는 반면, 70.4%(366명)가 한 번도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직업훈련기관내의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이수 후 취업활동의 전략과 취업활동의 실패를 대비한 대책까지도 포함된 개인별 직업능력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생활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특히 고등교육차원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상황을 사전에 체험해 보고 이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 경험과 학점의 연계

① 경험학습의 대두

현대 사회에서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성인들은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4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평생교육세계총회에서 Cristopher Ball은 “21세기에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직업생활을 할 수 없고, 평생학습체제를 갖추지 않는 사회조직은 생존할 수 없으며, 학생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평생학습과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는 성인들이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얻은 경험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듯 경험학습은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또는 실행으로 부터의 학습을 말한다(백은순,1997 :9-10).

경험학습은 Mezirow, Kolb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1980년 대에 이르러서야 학습의 인지과정으로 인정 받기 시작하였다. 학습을 경험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Kolb(1984)는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의 두 가지 상반되는 논리, 즉 구체적 경험 대 추상적 개념화를 가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험학습은 4단계 주기를 통해서 발생한다. 첫째 단계는 새롭고 구체적인 경험(완전히 몰입되는 단계)을 겪는 실제적인 경험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해석하는 반성하는 반성적 관찰이다. 이러한 관찰을 논리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개념을 창출하는 추상적 개념화 단계가 세번째이며, 마지막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새롭게 파생되는 이론이나 학습을 활용하는 행동적 실험단계이

다. 즉 실제적인 경험은 관찰과 반성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이러한 관찰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는 행동은 이론으로 융합되고 다시 새롭게 창출된 의미나 가설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 영향을 주는 지침서로 활용된다. 따라서 Kolb의 모델에 의하면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은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학습은 네 가지 과정이 연계·순환되면서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학습이란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성인학습자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개방적으로 새로운 경험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하고, 습득한 경험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공정하게 경험들을 관찰하고,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험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는 습득한 경험을 논리나 이론, 개념적인 틀로 발전시키고, 발전된 개념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험과 학점 연계의 중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능력 있는 개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인들로 하여금 고등교육 참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인들로 하여금 직업현장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은 단순한 학문적인 기여 이상의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 배경에 관계없이 학점취득과 관련하여 가치가 있는 사전학습을 강조하는 경험학습은 특정한 형

식적인 배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직장에서 얻은 경력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 상당히 가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성인의 유용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경험학습을 통해 성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성인학습자들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은 학위취득이 필요하거나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에게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학위가 없는 성인근로자들은 대학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학습활동은 성인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줄 수 있다(백은순 외, 1997: 16).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의미있는 경험을 학점으로 환산시킴으로써 대학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실무에서 습득한 경험을 이론과 접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경험을 통한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전이효과와 동기유발이 더욱 강하다. 마지막으로 성인개개인은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자아실현이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기관과 학습자가 산업체에서 경험하는 경험학습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활동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2. 평생고등교육과 학점 은행제

1) 원격형 고등교육

① 방송통신대학

1970년대에는 전통적 교육제도의 지나친 형식성과 경직성에서 비롯된 교육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과 인간소외적 정보화시대의 물결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 상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드높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해결의 일환으로써 세계의 지도자들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전 세계 교육개혁의 지도원리로 삼도록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대학의 설립으로 그 해결의 출구를 모색하였다.

이러하여 1967년 11월 15일 교육법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국립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을 부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부는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시행규칙이 문교부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방송통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교육은 학생이 학교라는 일정한 장소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통학형 교육관을 깨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교육 모형을 정립하게 되었다.

방송통신대학의 제도적 특징으로는 입학자격에 있어서 특별한 요구조건은 없고 고등학교 또는 동등과정의 학업성적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편입의 경우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1학년 이상 수료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전적학교의 학업성적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수-학습체제는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 학습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강의와 출석수업, 과제물 침삭지도를 근간으로 하고, 그 밖에 출석수업 대체 지상강좌, 녹음녹화 강의, 교수 순회지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

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은 누구에게나 열린
진 개방 고등교육, 연령이나 직업 유무에 관계없는 평생 고등교육기관으로써
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② 원격대학

1998년에 공포된 평생교육법 제22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
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에 법적근거
를 두고 탄생된 것이 소위 ‘원격대학’이다. 가상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의 용
어도 사용되고 있으나, 가상대학은 ‘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사이
버대학이라는 용어는 외래어로서 법률 용어화 하기 부적합하다 하여 평생교
육법의 법제처 심사 시 원격교육/원격대학이라는 용어로 수정되었다. 원격대
학이란 제반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교수자
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
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위를 인정해 주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원래 원격대학에 대한 논의는 1996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대학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인 가상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
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당시 제3차 교육개혁 과제로
써 ‘가상대학설립방안’이 확정되었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9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년간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하였다.

원격대학의 성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이다.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다. 둘째는 고등교육기관으로써의 성격이다.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원격대학에 입학하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능도 수행한다.

원격대학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원격대학은 오프라인상의 실제 교육공간도 갖추어야 하는데 다만 대학이나 학교가 원격대학 설립주체로 나설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시설로 대신할 수 있다.

원격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 과정과 4년 이상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되며, 두 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전문학사학위는 80학점 이상, 학사학위는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로 해당 대학장이 수여하고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다.

2) 비전통형 학위취득제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독학사제도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당시 문교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1990년 4월 7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 제4227호)을 공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학자습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진학 기회를 상실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2의 학위취득의 길을 열어주고자 구상된 것이다. 독학으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독학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려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등 4단계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자격은 단계별로 다른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중퇴자, 외국교육기관 수험자,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다. 합격기준은 3단계 시험까지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과목별 합격이 인정된다. 즉 60점 이상인 과목은 합격으로 인정하고 낙제과목에 한해서 연한 제한 없이 계속 재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60% 이상 득점해야 하고 과목별 합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습을 요하는 전공과목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기업체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이수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공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등 12개 분야인데,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II-3> 참조).

<표 II-3> 독학사 시험

단계별	구분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기준	과목별 합격
제 1 단계	교양과정	고졸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선택형 및	매과목	인정

	인정시험	12년이상외국수학자	서술적 단답형	60% 이상 득점	
제 2 단계	전공기초 과정 인정시험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대학(전문대, 방송대, 개방대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수료자, 13년 이상 외국 수학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인정
제 3 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 인정시험 합격자, 전문대학 졸업자	선택형 및 논문형	위와같음	인정
제 4 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전공심화 인정시험 합격자, 대졸학력 인정자	위와같음	만점의 60% 이상 득점	인정 하지 않음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1998년부터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부에서 주관하였고, 2001년 9월 1일부터는 독학학위검정원으로 개편되어 독학학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차갑부,2004: 172-174).

1990년 10월 20-21일에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되었고, 1993년 2월 10일에 147명이 이 제도에 의해서 최초로 학위를 받았다. 2003년 2월 10일에는 제 11회 학위수여가 있었는데 당일 현재 총 7,042명이 이 제도에 의해 학위를 받았다.

② 사내대학

지식근로자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사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사내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들은 일반 직원으로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학습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의 학습에 대한 관심고조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내대학 형태로 나타났다.

사내대학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일컫는 개념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학이라기보다

교수-학습체제이다(Jarvis, 2001: 111). 대부분의 사내대학들은 회사 내 사원을 위해 설치되기 때문에 폐쇄적이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내대학의 역사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으나, 선진국에 있어 기업들이 사내대학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1960년대 초부터 라는 견해가 있다(Jarvis, 2001: 112). 기업들은 사원들의 교육을 위해 전통적 교육기관에 그들을 보내면서 자체적인 사내훈련학교를 준비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1990년대부터 사내대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내대학의 목적은 국내외 기업 모두 비슷하지만, 국내 사내대학은 고급인력의 자체 양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고급인력의 외부 충원이 쉽지 않은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대학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평생교육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교육강화 의지, 사원들의 학습의욕 확대 등이 결합되어 사내대학이 활성화 되었다.

최근에는 사내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25조에는 사내대학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사내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렇듯 단순히 기업자체에서 인정해 주던 학위·학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위·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내대학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는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기업측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측면으로 인해 앞으로 사내대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학점 은행제

1995년 5.31교육개혁 방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방향으로 수립되었고, 학점 은행제는 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학점 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구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점 은행제는 그간 과도한 대학입시로 인한 국가의 전체적인 교육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국가자격을 과감하게 학점으로 호환시켜 인정하는 등 ‘능력중심의 사회’를 조기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또한 평생직장이란 개념보다 평생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점 은행제는 새로운 직업관련 지식과 능력 습득을 가능하게 해 주며, 짧아진 지식의 생애주기로 인한 신속한 지식의 습득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결과를 학력, 학위와 연결시켜 평생학습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고등교육과 동등한 학력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대학 중퇴자라도 기존 대학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학점 은행제로 계속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학제도에 비해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평생교육 훈련기관이나 독학사 시험 및 독학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 등의 학습경험을 그대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포괄성과 종합성을 띠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들을 그 등급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이다.따라서 학점 은행제는 학습내용과 결과에 대한 질적인 수월성을 갖추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학점 은행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전통적인 학교중심의 교육체제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II-4>와 같다.

다른 한편으로 학점 은행제는 지금까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인정 받지 못

한 채 소외되어 온 평생교육의 이수 결과를 국가가 인정하므로 형식적 기관인 학교교육과 비형식적 기관인 평생교육간의 별을 허물고 상호 인정과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민 평생학습권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교육결손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표 II-4> 전통적 학교 중심 교육체제와 학점 은행제

구 분	학교중심교육	학점 은행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한 지식, 기술의 습득과 자격의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학습결과의 제도적 인정 (학점/학위/학력/자격 등)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또는 진학준비교육으로 반드시 직업세계에의 준비를 위한 교육은 아님 • 학문지향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이 직업 및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 • 실제 지향적 성향
전달체제 및 학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출석식 전일제 교실학습 형태 • 면대면의 직면학습과 강의식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전달체제와 매체활용(출석학습, 원격학습, 자율학습 등) • 개인의 자율적 교육욕구 충족이 최우선시 됨
학습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된 시간표 • 정해진 교육기간 및 학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변적 시간 • 자율적인 학습진도나 학습방식이 학습경험의 유형 등을 결정
관리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향식 관계, 제도적인 절차 및 형식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자기주도적 학습결정 •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
평가인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과 동시 졸업증서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기준 달성시 학점이나 학위, 자격 등으로 인정

출처 : 김신일 외(1996). 「학점 은행제 도입 및 실시방안」.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평생교육분과위원회.

이처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학습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은 학점 은행제가 직업교육 및 각종 국가자격을 우대해 줌으로써 그 동안 학력사회의 병폐를 완충시켜 주고 전문 자격증 시대를 구현해 가는 선진적인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분석의 틀

학점 은행제는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준 제도이며, 고등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단순히 학위취득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생학습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은행제 참가 유형,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서 기대정도와 만족도,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및 희망사항 등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누락한다면 그만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Mary & Mark, 1987: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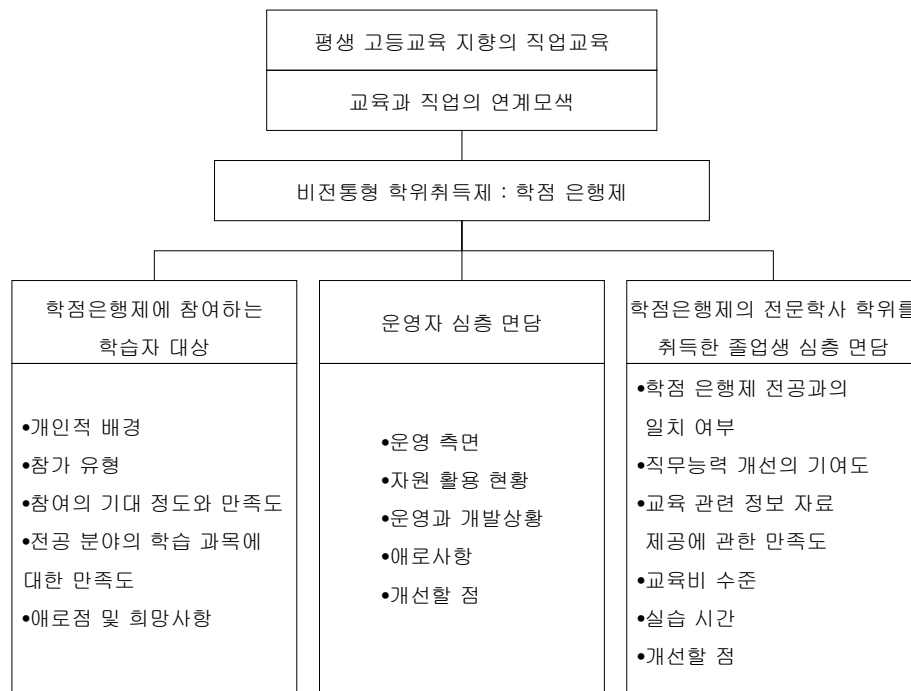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이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제공내용물이므로 학습자들이 선택한 교육내용의 수준, 조직, 다양성 등은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평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정보전달매체 또한 학습자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획득하기를 요구하므로 학습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설 및 장비는 학습에 관련된 기자재, 실습실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를 포함한다. 교육공학과 정보화의 발달로 교육기관 내에 각종 첨단 교육기자재와 시설이 요구되고 편리하고 유용한 교육환경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과 제도,

교육과정에 관한 안내, 접수 등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때 학습자들은 보다 만족스러운 학습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참여에 있어 애로사항에 따라 학습자들이 학점은행 교육참가에 장애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학점 은행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와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현행제도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고 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의 개선점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열린 고등교육 체제로써 역할을 다하는 학점 은행제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 과 같다.



[그림 II-1] 연구 분석의 틀

III.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 현황

1. 한국

1) 운영체계

학점 은행제 도입을 위한 교육개혁안은 정부에서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결을 거쳐 이에 따라 1997년 학점 은행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제5274호, 1997.1.13)이 제정되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11일에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97호)이, 1998년 2월 28일에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학점 은행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법률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 3월 1일 61개 평가인정기관의 274개 학습과목이 평가 인정되어 학사 18개 전공, 전문학사 23개 전공이 개설된 후 2000년 2월 21일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여 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이 최초로 배출되었다(<표Ⅲ-1> 참조). 그 이후 매년 학위수여를 하여 2004년 2월 23일 제5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여 학사 2,236명, 전문학사 3,980명을 배출하였다.

<표 Ⅲ-1> 학점 은행제 학위수여자 인원수

(단위 : 명)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학 사	25	254	663	1,327	2,555	2,236	7,060
전문학사	9	766	1,796	3,123	5,245	3,980	14,919
계	34	1,020	2,459	4,450	7,800	6,216	21,979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4).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연수자료집. 미간행.

현재까지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총 21,979명으로 그 중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67.9%로 학사학위 취득보다는 전문학사학위를 더

많이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을 위한 조사·확인, 학습과목에 관한 재평가, 표준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요목개발·고시, 학점 은행제 정합정보시스템의 구축,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상담자료실 설치·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각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학습과목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업무 대행, 학점인정을 위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확인에 협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학점 은행제는 타제도와의 연계도 가능한데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인정 받은 학습자에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학습자에게는 독학사 시험 제2단계인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7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학습자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05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학습자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학사과정은 140학점, 전문학사과정은 80학점(3년제 120학점)으로 하고 있다. 두 과정모두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나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표Ⅲ-1> 참조).

<표 Ⅲ-2>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

구 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교 양	30 학점 이상	15 학점 이상	21 학점 이상
전 공	60 학점 이상	45 학점 이상	54 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140 학점 이상	80 학점 이상	120 학점 이상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학습과목별 학점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하고 실험·실습·실기의 경우는 100분 수업을 1학점으로

로 하고 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의 방식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사학위의 경우 교양과목 30학점 이상,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논문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때 실기시험은 작품·연주·공연 등으로 구분하며 논문 또는 실기시험의 부과는 학위종별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복수전공을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하고 논문 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학사의 경우 2년제 과정은 교양과목 15학점 이상, 전공과목 4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3년제 과정은 교양학점을 21학점 이상, 전공과목 5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20학점 이상을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논문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의 합격을 학위수여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학사학위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당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학습과목이 없는 경우에도 학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운영 현황

① 유형별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대학·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각종학교·언론기관·정부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표 III-3>에서 보듯이 개설기관수로 보면 대학이 4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학원이 19.5%, 기술인력양성기관이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 중에서도 기술계 학원의 운영비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된 학습과목 수로는 13,092개 과목이 개설된 가운데 역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비율이 49.8%로 가장 높고, 기술인력양성기관이 22.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을 받는 학생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생이 42.3%로 그 다음은 기술인력양성기관에 등록된 학생이 29.2%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점 은행제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부설의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술계통의 학습을 통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 유형별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2004. 4. 1 기준)

교육훈련기관 유형		교육훈련기관 수	학습과목 수	정 원 (명)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 학 교	108	4,616	471,870
	전문대학	79	1,900	105,605
	소 계	187	6,516	577,475
대학 전자계산원		2	149	76,800
전문대학 전공심화		24	599	28,120
전문대학 특별과정		6	262	20,120
학 원	기술계	58	1,000	77,034
	어학계	6	32	1,295
	사회계	9	151	20,080
	예능계	13	352	13,458
	소 계	86	1,535	111,867
기 술 인 력 양 성 기 관	공공직업	13	712	74,560
	인정직업	61	2,204	320,205
	기능대학	2	40	4,485
	소 계	76	2,956	399,250
정부관련기관		20	253	25,441
언론관련기관		4	66	7,070
고등기술학교		3	153	56,756
특 수 학 교		3	72	1,050
평생교육시설		6	292	44,930
중요무형문화재		17	197	8,160
원격교육		6	42	9,650
총 계		440	13,092	1,366,68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4).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연수자료집. 미간행.

②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이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즉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양과목 및 전공영역별 전공과목의 학점, 이수시간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III-4> 참조).

<표 III-4>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고시

(단위 : 개)

		1차 98.2	2차 98.9	3차 99.2	4차 99.8	5차 00.8	6차 01.3	7차 01.12	8차 02.12	9차 03.11	10차 04.10
표준 교육 과정 정	학사	18	56	60	70	73	75	77	84	90	94
	전문 학사	23	57	64	81	83	84	86	91	91	92
	소계	41	113	124	151	156	159	163	175	181	186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교수 요 목	교양	12	134	300	307	308	312	321	321	322	323	323
	전공	155	465	642	1,194	1,409	1,620	1,826	1,956	2,138	2,629	2,830
	소계	167	159	942	1,501	1,717	1,932	2,147	2,277	2,460	2,952	3,153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4).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연수자료집. 미간행

표준교육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제안에 의한 개발 방법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체 개발방법이 있고, 최종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검토와 수정·보완에 의해 고시가 결정된다.

학습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과목은 이를 다시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반선택과목이란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학사과정 30학점, 전문학사과정 15학점(3년제 전문학사과정 21학점)으로 하고,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은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60학점, 전문학사과정 45학점(3년제 전문학사과정 54학점)으로 한다.

특이할 점은 기술계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학위대상자부터 교양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즉 기술계학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이 학사 85학점 이상 전문학사 65학점 이상(3년제), 50학점이상(2년제)인 학생

은 교양과목 탄력운영 최소이수학점으로 학사 21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15학점 이상(3년제), 9학점 이상(2년제)만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점 은행제가 기술계 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한 발전적 모습이라 본다.

③ 학위 종류

학위취득의 조건을 필한 자에게 학위 종류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데 학사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표Ⅲ-5>와 <표Ⅲ-6>에서 보듯이 2005년 현재, 학사는 18개 학위에 94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전문학사는 11개 학위에 92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2004년 4월 현재 440개 평가인정기관에 13,092개의 학습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그 중 학사나 전문학사 모두 공업관련 전공과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학사학위 종류와 세부 전공

구분	학위 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학사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경영학사	경영학,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경제학사	경제학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광고학사	광고학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무용학사	무용학
	문학사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사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의상디자인, 현대공예, 화예학, 회화
	법학사	법학
	수산학사	항해학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예술학사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음악학, 작곡, 피아노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피부미용학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행정학사	부동산학, 행정학

<표 III-6> 전문학사 종류와 세부 전공

구분	학위 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산업예술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보석가공,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행정전문학사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의료전문학사	의료(3년제)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영상,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운항,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여성농업경영

④ 학위별 전문학사 학위 수여 현황

전문학사학위의 학위종류별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등 IT분야 전공이 속한 공업전문학사가 3,762명으로 전체의 66.07%를 차지하였으며 기악·미술전공의 예술전문학사가 1,386명으로 전체의 24.34%, 산업예술전문학사 6.13%, 가정전문학사 0.98%, 행정전문학사 0.79%, 관광전문학사 0.56%, 경영전문학사 0.37%, 언어전문학사 0.44%, 의료전문학사 0.44%를 차지하고 있다<표III-7>.

이는 실용적인 전공에 대한 학습자의 인기도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운영되는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원, 고등기술학교 등과 같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이 해당 학위종류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7> 연도별 전문학사 학위수여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백분율)
가정전문학사	-	15	14	27	56(0.98)
경영전문학사	2	1	6	12	21(0.37)
공업전문학사	6	348	1,188	2,220	3,762(66.07)
관광전문학사	-	-	4	28	32(0.56)
산업예술전문학사	-	25	100	224	349(6.13)
언어전문학사	-	3	9	13	25(0.44)
예술전문학사	1	374	470	541	1,386(24.34)
의료전문학사	-	-	5	13	18(0.32)
행정전문학사	-	-	0	45	45(0.79)
계	9	766	1,796	3,123	5,694(10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교육백서」, p.42.

연도별 연령별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전문학사의 경우 21세에서 30세 사이의 학습자가 전체 학위취득자의 78.47%인 4,46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세에서 40세 사이의 학습자가 552명으로 전체의 9.6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III-8> 참조). 이는 전문학사의 경우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학점 은행제를 통해 실무적인 직업교육과 함께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8> 연도별 연령별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백분율)
20 세 이하	0	48	145	307	500(8.78)
21 세-30 세	3	566	1,368	2,531	4,468(78.47)
31 세-40 세	4	111	215	222	552(9.69)
41 세-50 세	2	37	61	59	159(2.79)
51 세-60 세	0	4	7	4	15(0.26)
계	9	766	1,796	3,123	5,694(10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교육백서」. p.44.

3) 학점 은행제 관련 법률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은 1997년 제정되어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 제2조 3항에서 ‘대학’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직업기술관련 부문확대에 따른 대학범주를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과정평가인정에 관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변경 절차를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학점인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시간제 등록 수업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화생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학위수여자도 대학의 장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의 장, 사내대학 형태와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도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의 장만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기관의 장도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이라는 학점 은행제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학점 은행제의 양적 확대가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은 독학학위제와 학점 은행제 간의 연계 체제를 확립하고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주어지는 독학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 응시자격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일반 대학에서 이수한 자와 동일하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고등교육기회를 놓친 국민들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1999년부터 독학학위제와 학점 은행제 간의 연계 운영이 현실화되어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독학학위제와의 연계 운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김기홍, 2001).

결국 학점 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학점인정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자격기본법

최근 끊임없이 급변하는 산업 및 직업세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각 개인의 노력도 증가되고 있다. 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제도를 포함한 인력개발 체제를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과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민간 자격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자격기본법이 1997년 3월 제정되었다.

학점 은행제에서도 국가가 공인한 자격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학점 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자격이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김기홍, 2002:20).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학습자에게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기술 외의 국가자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2항 별표2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장이 학점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 외의 기타 국가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해 21개 부처에서 120개의 자격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만 학점으로 인정하되 세부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국가 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달리 자격관리기관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기관과 급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3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 및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해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화의 밀접한 관련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제5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시책으로써 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제정·보급, 교재의 편찬·보급, 관련 자격제도의 운영 및 교사의 양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자와 수강자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홍보와 이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비진학청소년·장애인·고령자·주부·군전역자·군전역 예정

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전환훈련과정·창업훈련과정·직장적응훈련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련과정과 훈련대상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국가 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비용,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 수업료,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평가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기술장려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법률을 고찰해 본 결과, 운영상 개선과 보완해야 할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서 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평가 인정을 신청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할 때는 평가인정이 취

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할 경우 세부적인 변경 사항을 변경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 인정 자체가 취소된다는 것은 학습자나 운영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자 지원에 관한 학자금 대출, 장학금 제도의 내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듯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별 법규체계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하겠다.

2. 외국 사례

1) 미국

한국의 학점 은행제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발견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와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를 가진 성인교육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에 대한 인정을 철저히 각 대학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학점의 운영도 실시 기관마다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50% 이상이 열린 학위취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수업 출석에 의한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방식이 사라지고 성인학습자들의 직업과 가정세계의 경험을 학업과 연관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기회의 개방과 평등한 교육기회는 직업을 가진, 공교육제도를 벗어난 성인들에

계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학위취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학위 취득처럼 대학에 출석수업으로 학위를 수여받는 전통적인 학위취득과정과,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융통성있게 운영되는 비전통적인 학위취득과정이 있다. 이 중 비전통적인 학위취득제도는 우리나라의 학점 은행제와 유사한 제도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성인들을 위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 개방, 열린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비전통적인 학위취득은 두 종류의 대학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4년제 대학에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학위프로그램과 함께 열린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학들은 열린 학위과정(University Without Walls), 교외학위과정(External Degree)등의 이름을 빌어 이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혹은 전담부서를 따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학위과정은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대학 설립 목적자체가 성인학습자들에게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들 대학은 1970년 이후 설립되기 시작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비전통적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들은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① 학점인정 범위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점인정 평가를 위해 자체 평가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외부의 평가전문기관을 활용하기도 한다. 단순한 수업출석과 시험 외에 학습

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첫째, 교육기관들 간의 상호학점 교환 혹은 인정

둘째, 포트폴리오 학습자의 경력과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셋째, 개별학습(independent learning)을 통한 학점취득

넷째, 통신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

다섯째,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각종 자격증 및 수료증을 학점으로 인정

여섯째, 대학수준의 능력시험(College Level Examination Program ,CLEP) 합격
을 학점으로 인정

○ 교육기관간 상호학점인정

미국의 대학들은 교육기관 혹은 비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학점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간에 상호 교육경험, 혹은 경력과 관련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한 주의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목이, 다른 주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한 경우 인정된다. 그리고 학점교환은 대학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대학내에서도 직장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학위취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는 미리 대학을 정하고, 그 곳에서 학점을 이수하며, 해당 대학은 학습자의 학점 이수 경력 인정여부를 자체 내에서 혹은 외부전문기관에서 심사하는 형식을 지닌다.

○ 경력/경험의 학점인정(포트폴리오 작성)

삶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학습활동을 토대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인들의 학위취득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 방법에 관계없이 학습자가 터득한 내용에 대해 대학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미국대학

의 독특한 특성이다. 예를 들어 몇몇 대학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싱을 개설하고, 학생이 수강신청해서 심사에 통과하면 3학점을 인정해 준다. 삶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학습 내용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에서는 배움의 장소와 방법에 관계없이 학생이 워드프로세싱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그것이 9살 때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에게 3학점을 인정해 준다.

하지만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수 많은 교과목 가운데 그 교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될 만한 8가지 삶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노동 : 직장에서 습득한 많은 양의 기술로써 예를 들면 서류정리, 속기, 회계, 재정관리, 독도법, 군사전략, 컴퓨터 프로그램 짜기와 작동법, 편집 등

㉡ 가사 : 가정관리, 가족설계와 예산, 육아, 아동심리학, 교육학, 영양학, 요리 등

㉢ 자원봉사 : 지역사회 활동, 정치캠페인, 교회활동, 사회사업 기관이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등

㉣ 산업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습 : 회사에서 개최하는 연수과목, 신입교사 연수과목, 학술회, 임상강의, 연차총회나 학외, 통신교육 등

㉤ 여행 : 사업과 관련된 여행이나 의미 있는 휴가, 다른 나라나 문화에서 특정기간 동안 살았던 경험, 다른 문화와 관련된 활동 참여 등

㉥ 오락 활동과 취미 : 음악적 기술, 비행훈련과 기술,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연극, 예술활동 참여, 소설과 비소설 저술, 공공연설, 정원 가꾸기, 박물관 관람, 연주회나 영화관람 등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활동

㉦ 독서 : 대학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광범위하거나 집약적인 독서, 예를들어, TV에서 방영된 다양한 연속 프로그램 관람 등

④ 전문가와 토의 : 전문가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모임을 집중적으로 가짐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학습 등

학습자의 경험은 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삶의 경험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조목조목 기록하여야만 한다. 예컨대 삶의 경험에 대한 경력서를 준비하거나, 그에 동등한 시험을 치름으로써 습득한 지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 많은 대학들이 비전통적인 경험에 대해 몇 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비행사 면허증은 4학점, 기구 점검은 6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미국 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f Education)에서는 이런 규정집을 간행하여 많은 학교들이 학점 배정을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 안내서로도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학위취득과 직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경험을 학습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보이기 위한 비디오 테이프, 연구결과물, 다른 사람의 추천, 포상증명, 워크샵 등의 교육참여, 동료들의 평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이런 자료들은 학습자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

포트폴리오 평가 교수는 포트폴리오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자와 컴퓨터를 통해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며, 전화를 통한 구두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뿐 만 아니라, 적절한 과목에 학점을 인정하기 위한 확인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인정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최대 학점 수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떤 대학은 5학점에서 35학점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포트폴리오 인정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아 학위이수에

필요한 대부분의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포트폴리오에서 학점은 구체적으로 대학의 각 전공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전공과 교양 및 선택과목으로 학점이 구분되어 명시된다.

㉔ 학습계약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교가 요구하는 출석수업에 매주 출석함이 없이 교수와 맺은 학습계약에 따라 학생들이 수행하는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다. 예를들어 어느 한 학습자가 직장에 나가면서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수와 학습계약을 맺었을 시 인정되는 학점범위는 다음과 같다.

㉕ 이론과 기술개발 영역(연구의 40%)

- 지역사회에서 세 과목 수강(프로그램의 20%)
- 4권의 책과 지도교수가 제안한 것을 읽은 후에, 자신의 교육철학과 성장에 대한 글을 준비한다. (프로그램의 10%)
- 자기전공과 관련된 학회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의 10%)

㉖ 지도력과 경영전략(연구의 30%)

- 연구의 첫번째 단계에서 배운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시도로 협동유아원(Cooperative Nursery School)에서 일을 한다 : 모든 모임의 시간표, 학습활동의 자기평가, 외부평가자에 의한 논평 등을 일지에 기록한다. (프로그램의 15%)
- 여성봉사기관(예: Woman's Crisis Center)에서 20주 동안 주당 8시간씩 봉사를 하고 그 봉사경험을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15%)

㉗ 조직개발의 분석과 설계(연구의 30%)

- 유아원이나 사회봉사센터(Crisis Center) 중 하나의 기관을 자세히 연구하

고, 이 조직체의 자금경영과 개발을 위한 건의가 포함된 설계와 분석을 한다. (프로그램의 20%)

- 결과와 건의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며, 기업발전과 성장에 대한 개인의 철학과 관련된 긴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프로그램의 10%)

학습자가 위에 기술된 모든 계약사항을 지키고 그것을 대학교수가 인정하면, 대학은 조직개발 분야의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별학습 (Independent Study)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한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실제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일정하게 참여할 수 없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이다. 개별학습은 학습자와 교수 개인의 학습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수강생 수의 부족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없을 때, 학생들의 학습요구는 개별학습으로 충족될 수 있다.

개별학습은 정식 대학 교과목으로 시간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 과목을 신청해야 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생은 먼저 자신이 학습하고자 원하는 주제를 정한 다음, 상담을 통해 어떤 교수가 해당 주제를 전공하는지 조언을 받고, 개별적으로 교수를 찾아가 의논한다. 그리고 교수가 허락하면 개별학습이 시작된다. 이 때 교수는 학습자에게 학습목적, 학습과정, 교수방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자가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교수를 다시 만나고, 교수는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양자가 동의하는 학습계획서가 작성되었을 때 양자는 공동서명한다. 이 학습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학습계약이 성립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계약을 이행하고, 교수는 이것을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와 자원을 제공해 주며, 마지막으로 학점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학습은 학점을 취득하는 학습방법 중의 하나로, 직장을 가진 혹은 집단수업에 부담을 갖는 학습자들에게 선호된다.

㉔ 통신학습에 의한 학점인정

통신학습은 학습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개별학습을 변용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개별학습을 실시하나 학습자가 실제로 대학 캠퍼스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에 의해 교수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학습이 이루어진다. 통신학습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 실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몇 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가능할 때, 교수는 통신에 의해 학습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가 그 지역에 출장강의를 하기도 한다.

㉕ 정부의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

학습자들이 주정부나 혹은 연방정부에 의해 실시된 시험에 합격하거나 혹은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은 경우, 대학은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어떤 자격증을 어느 정도의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대학마다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많은 대학들의 경우 미국 교육 위원회(American Council of Education)가 작성한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인 자격증과 면허증에 부여된 학점수는 각 주마다 혹은 각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학점인정 정책지침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명시하고 있다.

㉖ 대학수준의 시험통과

학습자가 교수자와 만나거나 혹은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스스로 독학에 의한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한 것을 과목으로 정하고, 시험을 치루기 위해 대학당국의 시험관리센터에 시험을 신청하여 합격하면 학점이 인정된다. 이는 특히 홈스터디 그룹에 의해 선호되는

방법으로써 홈스쿨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자들은 이런 방법의 대학졸업을 선호한다.

미국 교육위원회나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학들의 거의 모두(97%)는 비대학 상황에서 성인이 획득한 학습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점 인정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된 평가 기법은 시험이다. 예컨대 대학수준시험프로그램(CLEP)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의 사용이다. 시험으로 학점이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은 예를 들면, 물리나 수학의 경우처럼 지면시험에 의해 성취도가 판별가능한 과목의 경우에 사용되고, 실험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제외된다.

② 학점인정과 학위수여 문제

학습자의 귀중한 경험을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그들이 겪은 정규학습이나 비형식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을 교육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자격증 위주의 사회에서 졸업증명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졸업증명서(certification)는 학습능력이나 기술의 특정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졸업증명서는 개개인 자신을 위한 성취적 상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대학은 시험에 의한 학점과 시험이 면제될 수 있는 과목들을 확대하고 있다.

○ 대학은 삶의 경험이나 학문적인 배경을 통해 습득된 능력을 학무적으로 인정하여 그것에 학점을 주어야 하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각 대학별로 개발하고 있다.

○ 대학은 평생교육과정처럼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대학

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과정을 확대하고 학점상호인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점은행 업무는 비슷하나, 뉴욕 주립대의 경우, 학점점인정에서 각 과목에 대한 평가는 2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위원회는 구두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행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요구하기도 하며, 작문, 예술, 또는 다른 종류의 기록에 관한 개인 진술서(portfolio)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위원회는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인정될 학점 단위를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학점을 누적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학사학위나 학사학위 혹은 대학원 과정의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③ 매사추세츠 앰허스트대학 운영사례

열린 학위과정은 대학의 전형적인 학습자로 여겨지지 않는, 즉 연령이 많고 가족부양의 책임을 진,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학위취득과정의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열린 학위과정은 성인들의 학위취득요구와 자기주도적 학습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열린 학위과정의 학습자들은 교수들과 협력하여 개별적인 학위취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University of Massachusess-Amherst) 의 열린 학위과정은 1971년 설립된 성인학위취득 프로그램(adult undergraduate degree program)이다. 학위과정은 거의 모든 전공에 걸쳐 가능하고 학제간 성격을 가지고 개별화된 학위가 제공된다. 학위는 B.A.,B.S.이다.

열린 학위과정에서 원격교육과 결합되어 일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몇 개 정해진 과정은 반드시 학교수업의 참석에 의해 취득되며, 생활경험과 직무 경험, 자격증 취득 혹은 시험통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점 취득원은 수업참

석, 온라인교육, 포트폴리오작성, 자격증 취득, 시험통과와 같은 방법이 있다.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 학점취득이 가능하지만, 앰허스트 대학교 열린 학위과정의 모든 등록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1주일에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o 열린 학위과정 개설 및 학위취득

열린 학위과정은 메사추세츠 대학교의 교무위원회(Provost)와 교수위원회(The Faculty Senate)의 승인을 받아 1971년 개설되었다. 열린 학위과정은 교내 학과의 전공과 유사하거나 혹은 학제간 성격의 전공에 개별학위를 수여한다. 열린 학위과정의 학위는 B.A.나 B.S.학위가 수여되고 교내학위 취득자와 같은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120학점 중 45학점은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열린 학위과정은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대학에 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주말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주말 열린 학위과정은 보통 대학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수업이 행해지고, 한 달에 1회의 출석수업으로 진행된다.

학위취득은 입학 첫 학기에 학위준비과정(degree development course)을, 2차 학기에 초급 작문과정(junior-level writing course)을 수강한다. 첫 학기 시작과 함께 등록자들은 관심분야의 담당교수와 그 외 관련자들을 면담하여 학위취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관점을 갖는다. 지원 가능한 사람은 23-70세 사이로 경험과 거주지에 무관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o 입학절차

- 열린 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연중 정기적으로 소집단 모임형식으로 진행되는 안내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열린 학위과정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개별학위, 선행학습과 대학의 입학요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 정보를 기초로 열린 학위과정의 잠재적 참여자들이 자기평가를 하거나, 학위등록을 하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 입학원서는 열린 학위 안내강좌에서 배부된다. 입학응시서류는 간단한 자기 소개서와 함께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심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한다.
- 합격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정하고 저녁강좌와 토요일강좌를 선택한다. 1997년 가을학기부터 온라인 주말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캠퍼스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학생도 처음 2학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퍼스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 이후부터는 1주일에 1회 이상 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 교육과정

열린 학위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필수과목과 공통선택과목, 개별학습, 논문과정, 기타로 구분된다. 공통필수과목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기초능력으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독서능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방법과 기법, 학위취득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경험과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과목명을 지정하지 않고 융통성을 주기 위해 많은 개별학습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개별학습은 경험을 학점으로 전이시키는 과목으로 여기에는 논문작성 과정이 포함된다. 선택과목으로는 경험기술, 온라인 리서치, 독서지도, 저널저술, 인터넷 리서치 등이 있다. 이 과목들은 필수과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리서치는 학생과 교수의 개별 학습과목으로 여기서는 일대일의 학습이 컴퓨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주말 열린 학위과정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 자

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열린 학위과정은 등록자들의 개별학습과 학위취득을 지도하는 교수의 지식과 능력에 사실상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학위취득에 관한 일반정보는 물론 담당직원에 의해 전달되지만, 실제 학위취득을 위한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경험을 구체적인 과목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모두 교수들에 의해 행해진다. 교수들은 지도교수로 선수학습평가, 개별학습지원, 성적평가의 역할이 주어지고 교수와 학습자와의 관계에 따라 어떤 경우는 교수 한 사람이 학습자 한 사람에 대해 이 4 가지 역할을 모두 하기도 하며, 때로 한 가지 역할만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은 선수학습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 선수학습 평가

선수학습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학점화하도록 추천한다. 작문수업에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를 읽고 학생에게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만족스런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작성되었을 때 최종 서명을 한다. 선수학습평가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열린 학위과정 담당자와 면담 : 학습자들의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및 첨부자료에 대해 알려주고, 작문수업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둘째, 포트폴리오 작성 중간에 검토를 위한 면담 : 포트폴리오 작성과정에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빠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들은 만족스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되므로, 교수는 포트폴리오 작성 중간에 학생과 면담이 필요하다.

셋째, 완성된 포트폴리오 검토.

넷째, 최종검토 모임 : 열린 학위과정 담당자와 교수, 학생이 모여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섯째, 선수학습 성적증명 진술 : 선수학습이나 경험의 학점화는 교수가 최

종적으로 선수학습성적을 진술함으로써 종결된다. 성적증명은 학습자의 학점 인정 학습분야를 진술함으로써 이뤄진다.

㉠ 개별학습지원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목적, 학습활동, 학점 및 평가방법을 논의하고 학기 중에 정기적인 면담을 하며 최종 성적을 매긴다.

첫째, 개별 학습계약서 검토, 서명 : 학생이 개별 학습계약서를 가져올 때 학습활동과 자료, 적절한 학점,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학생과 교수가 상호 동의하는 학습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할 때 상호 서명하고 사본 한 부를 열린 학위제도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둘째, 개별학습을 위한 적당한 학과나 과목을 선정한다. 열린 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의 개별학습은 가능한 각과의 학수번호로 등록하도록 권장한다. 각 학과의 개별학습과목으로 등록할 때 학생들은 학점을 평가 받는 것이 용이하고, 절차도 간단하다.

셋째, 개별학습을 수행 : 학생이 개별 학습과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성적 평가 : 각 학과의 개별학습과목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체제로 학점이 평가되고, 열린 학위과정에 등록된 경우는 학습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학점을 부과한다.

㉡ 특수 성적 평가자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점취득을 위해 훈련 등 교외에서 참여한 학습을 평가한다.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하고, 적절한 학점과 성적을 부과한다. 특수활동에 대한 성적 평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수집한다. 학생은 열린 학위과정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학교밖

에서 행해진 훈련과정에 관련자료를 수집한다. 수집자료는 학교외부에서 행한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서류와 주제 및 참여시간, 주관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증빙 자료와 함께 학생은 특수성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둘째, 특별성적 평가 : 수집된 자료를 훑어보고, 이 훈련과정이 대학수준의 학습으로써 적절한지 여부를 판별하고, 적정과목과 적정점수를 결정한다. 열린 학위과정에서는 40-45시간을 한 과목으로(Credit)으로 인정한다.

셋째, 서류에 서명 : 적절한 학점 수가 결정되면 서명하여 열린 학위과정 부서로 성적을 발송한다. 이때 성적도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㉞ 주말 열린 학위과정

이 과정은 최소한 일주일에 일회 이상 대학에 출석해야 하는 학위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해 개설된 열린 학위과정의 변용적 운영이다.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교출석은 최소한으로 한 달에 1회로 줄인다.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학습진도와 진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해서다. 주말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미 언급된 교육과정과 같으나, 단지 차이는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출석을 요구하고 컴퓨터 온라인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㉞ 행정기관

열린 학위과정은 대학의 일반전형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모든 교내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열린 학위과정의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열린 학위과정은 2명의 행정직원과 10명의 열린 학위과정 전담교수, 1명의 강사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열린 학위과정은 대학의 모든 교수들은 열린 학위과정 교수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

고 있고, 열린 학위과정 필수과목과 관련 혹은 학생들의 상담을 위해 열린 학위과정 전임교수를 두고 있다. 2명의 행정직원은 입학허가 업무 담당자와 사무실 관리자이다.

2) 영국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도와 가장 비슷한 영국의 학점인정 제도는 직업교육체제를 배경으로 먼저 시작되었으므로 영국의 학점인정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의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① 영국의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의 상호인정제도

▫ 영국의 국가적 학점인정제도의 구조

영국의 직업교육과 훈련체제는 구조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측면모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 이전의 영국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심이 서독, 일본 등의 다른 선진 경쟁국가에 비하여 낮았으며, 주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영국정부는 직업교육을 산업체에 일임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업교육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영국의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을 세웠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틀 안에서 새로운 체제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6년에 국가직업능력자격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직업자격제(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창안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국가직업 자격제의 도입은 통일된 평가기준을 갖게 해주었다. 1993년에는 일반국가직업자격제(General NVQs)를 도입하여 일반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에는 국가직업자격제 주관기관과 교육과정 평가원을 통합함으로써 직업능력과 학업능력을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국가자격체계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를 마련하여 총 9단계로 구분화하고 체계화시켜 직업자격과 인문자격, 나아가 모든 학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능력인정수준과 학문능력인정수준의 각 단계가 각각 어느 단계와 일치하는가를 비교하여 국가적 자격인정제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국가자격체계 등급과 고등교육자격체계

등급	국가 자격체계(NQF)	고등교육 자격체계(FHEQ)
8	최고전문가(Specialist)	D(doctoral)박사학위
7	번역 7 등급 디플로마	M(masters)석사학위, 석사학위 후 수료증과 디플로마
6	경영 6 등급 디플로마	H(honours)학사학위, 학사학위 후 수료증과 디플로마
5	3D 디자인 5 등급 BTEC HND	I(intermediate) 고등교육.계속교육 디플로마, foundation 학위, HND (고등교육 디플로마)
4	유아지도 4 등급 수료증	C(certificate) HNC(고등교육 수료증)
3	소동물보호 3 등급 수료증 비행공학 3 등급 NVQ A level 자격(대학입학자격)	대학입학자격
2	미용전문가 2 등급 디플로마 농작물보호 2 등급 NVQ GCSE A* - C 등급	중등졸업자격
1	자동차학 1 등급 수료증 제과제빵 1 등급 NVQ GCSE D-G 등급(중등졸업자격)	중등졸업자격
Entry	성인문해 Entry 등급 수료증	

출처 : 최상덕(2005). 영국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위에서 보듯이 NVQ level 2는 GCSE(16세 중등교육 이수자격시험) A*-C등급, 그리고 NVQ level 3은 A level (대학입학 자격시험)과 대등하게 호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 자율에 따라 A level 자격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NVQ level 3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킬 수 있다. 그런데 NVQ level 3 자격은 16세 의무 교육이후 FE college 과정이나 현대적 도제제도(Modern Apprenticeship, 이하 MA)를 통해 획득하거나, 아니면 직업경험을 살려 획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서도 고등교육 진학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대학 1년 과정 수료에 해당하는 HNC(Higher National Certificate)나 2년 과정 수준인 HND(Higher National Diploma)를 FE college에서 획득한 경우, 상호 계약을 맺은 대학교에서 1년 또는 2년을 더 공부하면 학사학위(BA)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자격과 학력의 동등 수준 설정과 계속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자격을 학력과 연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학업능력과 직업능력 인정학점의 환산 방안

각 대학마다 각기 독자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대학을 옮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동일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전에는 폴리테크닉이었다가 1992년도 이후 대학으로 명칭이 바뀐 50개의 신 대학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신대학 연합체는 소속대학 대부분이 영국의 남동부에 있는 관계로 영국남동부협의회(SEEC)라고 한다. 이들은 교육고용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속 대학들이 이 방안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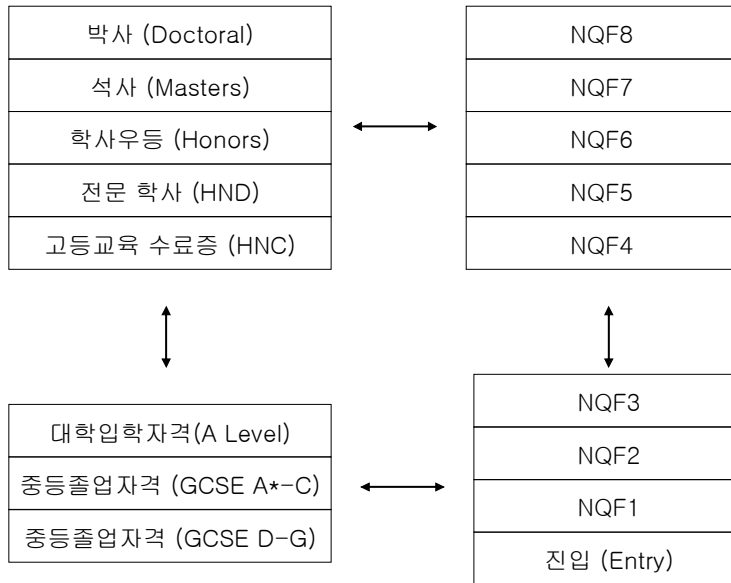
영국 남동부 협의회는 학점을 교육통화로 보고 있으며, 정해진 수준에서 10

시간 공부한 것을 1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점취득방법은 대학에서의 수강 이외에도 전문자격취득, 국가직업자격(NVQ)취득, 영국 국내와 해외에서 공인된 학습, 사내훈련, 작업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의 경험학습, 포트폴리오 등과 같이 다양하다(DFEE, 1996).

학점을 부여하고 인정할 때에는 몇 학점인지를 정하는 총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취득한 학점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등급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서를 준비해 놓았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분야의 10학점을 학업 분야의 학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직업교육분야의 10학점이 학업 분야의 어느 수준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여 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총 180학점이 필요하고 이중에서 수준 M의 학점이 120학점 필요하다고 하면, 취득한 학점의 총량이 180학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수준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학업수준과 직업수준의 연계

다음 [그림III-1]은 NQF와 QAA(Quality Assurance Agency)가 정한 5단계 고등 교육자격체계가 어떻게 호환, 연계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III—1] NQF와 고등교육자격체계의 연계

출처 : 최상덕(2005). 영국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평생교육학회 월례포럼.p.15.

또한 NQF를 통한 자격 간 연계와 호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 등급과 등급별 지표가 마련되어 있다(최상덕, 2005:16).

8등급 자격의 경우 특정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나 실천가임을 인정하고, 학습은 기존의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확장시키거나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의 발전을 포함한다. 최고 전문가 자격이 여기에 해당된다. 7등급 자격은 복잡하고 불시의 문제 상황에서 심층적이고 독창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고 복잡한 수준의 지식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이 요구되며, 고위직 전문가와 관리자 등에게 적합한다. 석사학위, 석사후 수료증, 디플로마에 해당되며 자격의 예로는

번역 디플로마와 음악 리터러시 펠로우쉽이 해당된다.

6등급 자격은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직종이나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고급 지식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이 요구되며, 지식기반의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전문 관리직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우등학사, 학사후 수료증, 디플로마 수준과 동등하며 경영 수료증, 디플로마 자격이 해당된다.

5등급 자격은 직무나 학습 분야의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력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학습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직업적인 전문성, 타인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고등교육 디플로마(HND), 기초학위(Foundation degree) 등 보통 석사 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중급 고등교육 자격과 동등하다. 건설 디플로마나 행위예술 수료증 같은 자격이 해당된다.

4등급 자격은 전문적인 학습임을 인정하며, 직무나 학습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학습은 기술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타인을 관리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고등교육 수료증(HNC)과 동등하고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디플로마, 유아 지도 수료증의 자격이 해당된다.

3등급 자격은 다양한 지식·능력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임을 인정한다. 학습은 상세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 자신의 직무분야에서 타인을 감독하거나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보조교사 수료증, NQF 3 ; A levels, 특A level, 소동물 보호 수료증이 자격의 예가 된다.

2등급 자격은 해당 직종과 학문에 대한 보통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약간의 지도나 감독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임

을 인정한다. 특정 직종이나 과목과 관계된 지식과 기술을 쌓는 학습이 요구된다. 자격의 예로는 NQF 2 ; GCSE A*-C 등급, 풋볼 코치 수료증, 미용전문가 디플로마가 있다.

1등급 자격은 기초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도나 감독 아래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임을 인정하며 일상적 상황과 연관되고 직무능력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자격으로는 NQF 1 ; 회반죽 공사 수료증, GCSE D-G 등급, 자동차학 수료증이 있다.

진입(Entry)등급은 기초지식과 기술,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 아래 학습내용을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임을 인정한다. 기초지식과 기술을 쌓는 학습이 요구되며, 이는 특정한 직종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때 자격 간 연계가 확대되면서도 자격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일치를 줄이고 정확한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간 연계를 위해 학점에 기반한 자격 제도를 확대하며 자격 간 호환을 위해 표준화된 단계별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격과 연관된 계속교육의 확대로, 평생학습 정책이 학습과 고용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계속교육기관으로써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FE college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FE college는 고용가능성이 낮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 과 복지제도까지 연관되어 있다.

FE college는 영국의 독특한 제도로 프로그램들은 부분적으로 고등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것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겹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Bailey, B. 2002:54). 최근에는 많은 FE college가 고등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일부는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HNC나 HND 과정을 제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혹은 FE college가 속

한 같은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BA과정(보통 3년)을 FE college에서 1-2년 수업하고 나머지 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한 뒤 그 대학 명의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학교교육에서 실패의 경험을 가졌거나 그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평생학습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고용기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학력격차에 의한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인정체제는 학점을 모아 자격 인정을 받는 체제이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실직자 및 교육·자격 요건을 별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기회 프로그램(Training Opportunities Program)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 훈련생들에게 유용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① 국가자격인정체제의 목적 및 원리

사람들의 삶의 기회와 취업에 있어서 기술과 지식은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학습이 일어났고, 기술이 습득되었고, 기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바로 그러한 인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자격인정체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종합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기존의 각종 자격 인정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체제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하나의 구조적 틀로써 여기에 새로운 자격 인정을 추가하여 답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준성 및 일관성 : 기존의 모든 자격 인정과 신규 국가 자격 인정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에 입각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자격의 질을 높이고, 자격 인정의 목적과 각종 자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성과(성취도)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학습 환경 및 기관 간의 학점 교환 및 호환을 촉진시키는 융통성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자격인정체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종합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종합적인 자격 인정 체제이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모든 유형의 학습을 포괄하며, 기능·이해·태도·가치를 인정한다.
- 명료성 : 자격 인증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규정한다. 자격 인정의 목적과 자격 인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밝힌다. 이수 학점은 영속적, 누계적으로 기록·보존된다. 이로써 모든 학습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밟아야 할 행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융통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융통성 있는 체제이다.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위 기준 결함에 따라 다양한 행로와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경제·사회의 변화 요구와 변화하는 연건 및 고객에게 민감히 대응함으로써 뉴질랜드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학점 누적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서 국가자격인정체제 내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수 방법 또는 프로그램 개발 등 세세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단위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 기관들은 프로그램의 전달에서 융통성을 갖는다.
- 접근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만인에게 열려 있다. 접근 기회에 대한 장벽은 최소화하고 이전의 학습(prior learning)은 인정된다. 자격은 언제, 어

디서, 어느 나이에서나 취득할 수 있다.

- 수월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질과 수여된 학점의 국내 외적 신뢰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특수성 : 국가자격인정체제는 Waitangi 조약을 준수한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마오리족의 특수한 기술, 지식, 태도, 가치를 인정할 책무를 진다. 마오리족 자격 인정 개발에 관해서는 마오리족이 관장한다. 자격인정 및 마오리족을 위한 단위 기준의 접근성과 적정성 등에 있어서 마오리족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마오리족은 국가 단위 기준 설정 단체들과 협력한다.

② 학점수여기관과 단위기준

단위 기준과 국가자격인정체제 상의 자격에 대한 학점 부여는 누가 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서 학습이 일어나든 국가자격인정체제는 그 학습에 학점을 부여한다. 즉, 학습이 있는 곳에 학점인정이 있다. 일터에서의 학습이든 교육·훈련 제공 기관에서의 체계적인 학습이든, 모든 학습에 대해 학점이 부여될 수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제공기관(Providers)이란 주 업무가 교육·훈련의 제공인 모든 기관을 지칭한다.

- 정규고등교육기관 : 종합대, 기술전문대학, 마오리족 대학, 교육대학
- 중등학교
- 공공 훈련기관, 사설훈련기관

그러나 교육·훈련 제공 기관들은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사전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일터는 등록된 평가기관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단지 인정을 받은 기관만이 자격 인정체제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자를 평가하며, 학습자를 인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학습이 있는 곳에 학

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교육제공 기관은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단위기준이 개발된 분야는 17개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는 농업, 임업과 어업, 지역사회와 사회봉사, 엔지니어링과 공학, 건강, 마오리, 계획과 건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단위 기준은 학습결과와 그에 관련된 수행 준거에 대해 국가가 인정 한 일관성 있는 묶음 체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전달과 평가를 지원하는 기술정보와 관리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다고 단위 기준은 훈련 매뉴얼이나 교육과정 지침서가 아니다. 단위 기준은 필요한 수행의 합의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교수 방법과 프로그램은 교육제공 기관들의 소관 사항이다. 즉, 교육제공 기관들은 학습자를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단위 기준에 의거하여 학습결과를 평가한다.

③ 등록과 인정

등록이란 공공 또는 사설 훈련기관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이다.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기관 상세 설명서 : 기관명, 소유권, 법적지위
- 기관 운영 지침서 : 기관 설립 목적, 운영 절차, 질 관리 목적 및 질 관리 체제, 준거에 따른 평가체제
- 출판물 사본 : 홍보 자료 사본, 내용 설명서, 기타 발간물
- 등록심사 : 등록심사는 매년 실시, 뉴질랜드 자격인정청(NZQA :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은 심사 3개월 전 당해 기관에 심사를 통보한다. 심사목적은 교육여건이 변함없이 동일한가와 기관이 만족스럽게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있다.

인정과정은 어떤 교육기관이 자체의 질 관리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와 뉴

질랜드 자격인정청과 관련 산업체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 제공 기관 또는 일터가 교수-학습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정 질 관리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정의 대상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국가자격인정체제는 교육 제공 기관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기준은 프로그램의 운영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를 진술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평가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와 기관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정과정은 교육기관이 자체의 질 관리 체제를 통하여 단위 기준에 따라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즉 어떤 기관이 국가자격인정체제 상의 단위 기준에 의한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정의 절차인 등록과 그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등록(Registration)과 인정(Accredit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질 보증 및 질 관리 체제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은 교육·훈련의 질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 보증은 본연의 교육·훈련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질 관리 체제는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즉 질 관리 체제 (Quality Management System)는 다음 8대 준거에 대한 목적, 절차, 심의 기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8대 준거는 첫째,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 전달, 평가, 둘째, 재정적, 행정적, 물리적 자원, 셋째, 직원 선발, 평가, 개발, 넷째, 학생 입학, 다섯째, 학습자 지도와 지원 체제, 여섯째, 현직 또는 위탁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일곱째, 평가,

여덟째, 보고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 국가 전체에서 자격은 고용주들에게 신뢰롭고 유용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들이 원하는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위는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학위가 국제적으로 높게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을 담보해야 한다. 종합대학의 학위 인정은 Vice-Chancellors' Committee의 소관사항이며, 국가자격 인정체제는 기술전문대학, 마오리족대학, 교육대학,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기타 학위에 책임을 진다. 양 기관에서는 모든 뉴질랜드의 학위가 국제 기준에 상응하도록 질 검증을 하여 그 학위를 보증한다.

국가자격인정체제에 등록하기 위해 1) 자격 인정 신청은 최소한의 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질은 자격 인정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2) 자격 인정 신청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거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등 결과를 행동 진술적인 용어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3) 수준과 학점 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자격인정체제에 등록되는 자격 인정의 유형과 범위는 국가자격인정체제 등록 준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가자격인정체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이러한 질적 속성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 <표Ⅲ-10>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Ⅲ-10> 국가자격인정체제 자격인정 신청 기준

질 속성	기 준
신뢰성	-자격 인정의 목적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 자격 인정은 학생들과 고용주들에게 가치가 있다. -관련 집단들과 그들의 이해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국가적 수준의 기구가 그러한 자격 인정을 지지하고 있다. -자격 인정 관리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자격 인정을 적기에 심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호환성과 내구성	-신청 자격 인정은 타 자격 인정과 논리적이고도 분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청 자격 인정은 다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자격증은 항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구조적 견고성	-결과는 일관성 있는 기술과 지식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결과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타당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격 인정의 요소들은 학생들과 고용주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격 인정의 전반적인 목적을 반영한다. -자격 인정의 요소는 논리적이고 분명한 내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 -자격 인정의 요소에는 가능한 한 학습의 입출입이 융통적이고, 자격인정에 이르는 길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자격 인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용어의 범위 내에서 적정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⑤ 학점 취득 관리

각각의 단위 기준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성취해야 하는 핵심 기능과 지식을 구체적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가 단위 기준으로부터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단위 기준에 상응하는 학점은 그 사람의 학점 기록부(Record of Learning)에 등록된다. 이것은 뉴질랜드 자격인정청이 운영하는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서 관리되며, 새로운 학점을 취득하면, 교육 제공 기관 또는 일터는 뉴질랜드 자격인정청에 이를 통보한다. 따라서 학점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개인의 학적 기록은 갱신된다. 학습자들이 단위 기준으로부터 자격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수료증, 국가졸업장을 받게 된다.

자격 인정은 8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취도는 자격 인정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처음 4단계 수준에서 성취한 단위 기준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면 국가 수료증(National Certificate)을 받게 되고, 5단계 수준에서 7단계 수준의 학점을 이수하면 국가 졸업장(National Diploma) 또는 학사 학위를, 8단계 수준의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원 수료증(Postgraduate Certificates), 졸업장(Diplomas), 학위(Degrees)를 받게 된다.

⑥ 이전학습인정제

이전학습인정(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은 다음 사항의 하나 또는 몇 가지의 결과로써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이전학습인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전학습인정은 기술과 능력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과거의 업적이나 실연(demonstration)의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고 인정한다.
- 이전학습인정은 워드프로세싱같이 단시일에 한 과목의 코스를 이수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 수료하지는 못했으나 한 과정을 시작했거나 해외와 국내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전학습인정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룬다
- 이전학습인정은 학점 전환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시사점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성인학위취득제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첫째, 학습시간이 자유롭다. 학습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별학습, 계약학습, 온라인학습 등은 학습자가 학습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시간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습과목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습자의 요구나 흥미와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설계한 학

위계획에 의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어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가 교육 내용으로 바로 편성되는 이점이 있다.

셋째, 학습자가 학습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일반대학의 학습지도는 획일적인데 반해 열린 학위취득제에서 학생들의 학습진도는 융통성있게 운영된다. 학습자는 보통 12-16주 사이에 학습진도를 마칠 수 있으며, 교수와의 상담에 의해 학습 분량도 개인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교육기관이나 준교육기관 등 제한이 없다. 학습자들은 조직을 벗어난 학습활동, 즉 개인의 여행, 생활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 운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학점 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적인 학위취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자들을 취업제도와 승진제도 등에 연관시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강의나 실습 등의 방법을 넘어서 개별학습, 계약학습, 온라인학습 등 학습자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점인정기관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인증하는 학점취득 인정기관은 교육기관이나 준교육기관을 넘어서 일반 자원봉사단체나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학점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영국은 국민기초지식체계에서부터 고급지식체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의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로써의 NQF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체계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요컨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한 국가의 교육기회는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한승희, 2003:58)

영국의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의 상호인정 제도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오랜 세월에 걸친 누적된 노력과 준비작업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국가 기술자격의 학점 인정을 기술사, 기사1, 2급 등 몇 개의 기술분야를 정해 놓고, 45학점, 30학점 등 산술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 기사 1급의 수준이 환경공학 기사 1급과 동일한지, 환경기사 2급의 수준이 토목기사 2급의 수준과 동일한지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제도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같은 기사 1급이라 하여도 많은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수준 차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학점의 사회적 유용성은 이를 고려해서 작성된 것보다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 학점 인정 방안을 사회적 유용성, 자격증간의 형평성, 학문분야와의 관련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의 경우 국가자격인정제도를 크게 학문능력인정, 일반직업능력인정, 직업훈련능력인정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학점 은행제는 학위 취득에 국한되어 있고, 직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학위 취득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의 자격증 분야 학점 인정에도 총량적인 학점부여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분야의 기사 1급 소지자가 대학의 몇 학점 이수자의 자질에 해당하는지, 또 어느 교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 작성에 산업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영국은 오랜 연구를 통하여 학업능력분야와 직업 능력 분야에서 각각

단일 기준을 세우고, 양 분야의 기준에 의하여 학업과 직업능력 분야가 어떻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틀을 작성해 놓았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통일된 기준은 필요하지만 이를 획일적인 규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다 융통성 있게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학위를 수여하므로 학과별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보다 많은 융통성이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사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외국어 영역이나 미용 등의 실기 영역의 경우, 전문대학 전임교수 이상이라는 자격요건 보다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원칙은 정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다양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영국은 교육고용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얻은 점수를 일반 학문능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점 은행제가 현실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의 범정부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뉴질랜드의 경우 첫째, 국가 자격인정제의 도입·운영 배경에 관한 논의이다. 국가자격인정제는 주로 직업기술 교육·훈련에 대한 자격 인정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국가 자격인정제는 이러한 교육 결과를 인정할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자격인정제가 경제적 필요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작단계에서는 산업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직업기술 교육적 접근 및 그에 대한 인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체 및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직업 기술 교육적 접근에 더 강조점을 두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질 관리에 관한 논의이다.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의 성공의 관건은 학

점 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자격이 고용주, 사회 일반 및 학습자들로부터 얼마나 질을 인정 받느냐에 달려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한 자격이 하나의 사회적 으로 얼마나 통용성을 갖느냐는 그 자격의 질(Quality)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달려있다. 뉴질랜드 국가 자격 인정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도 바로 질 관리와 수월성의 추구이다. 이를 위해 등록 심사, 기준에 의거한 평가, 기관 별 평가조절 장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 관리체 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셋째, 운영관리 체제에 관한 논의이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불과 360만 명임 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격 인정을 위한 독립된 기관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국가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즉 자격 인정에 관한 공신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설정 및 평가 업무는 관련기관, 협회, 자문가 집단이 분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기술 자격인증 관련 기관, 유관 정부 부처, 교육 기관, 사설 기관 등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한 기관에서 단위 기준 설정, 인정 및 인가, 학적 기록관리, 상담, 정책 개발 등 모 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점은행 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 관과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V.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의 운영 실태분석(I): 설문 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1) 조사대상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을 하기 위해 학점 은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학점 은행제 참가 유형,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 기대 정도와 만족도,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애로 점 및 희망사항, 개인배경 등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고, 설문지 배포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표 IV-1> 설문조사 대상 기관

지 역	학원	배포 (개)	회수 (개)
서울	H항공학원	200	176
	H자동차정비학원	70	59
	H자동차학원	10	8
	L패션학원	10	9
	H요리학원	50	48
	Y미용학원	30	21
경기	D직업전문학교	30	20
	K인력개발원	300	241
계		700	582

학점 은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기관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학점 은행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설문지 배포가 가능한 서울, 경기지역 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기관의

크기를 고려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총 700부 배포하였고 이중 582부가 회수되어 83.1%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2) 조사도구

<표 IV-2> 설문지 문항 내용

대항목	소항목
학점 은행제 참가유형	-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 - 참여동기, - 연간 참여 교육비, - 교육비 부담 주체, -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준 매체
학점 은행제 참여의 기대 영역	-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 학점이나 학위 자격증, - 여가선용, - 구직활동, - 사회변화적응, - 교양 함양, - 사회활동에 참여, -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접근, - 인간 관계 개선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교수방법, - 교육시설 및 장비 -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 - 교육비 수준
애로점 및 희망사항	- 애로점, - 원하는 학습과목이나 프로그램 내용, - 학점 은행제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과제
개인 배경	성, 연령, 학력, 직업, 혼인 상태, 월 수입, 거주지

2. 자료 처리 방법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중 25세 이하 연령대가 74.7%, 학력사항에서 90.9%가 고졸, 직업은 91.8%가 학생, 95.7%가 미혼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관한 집단차이 검증은 제외하고 성별, 월수입, 거주지에 관한 차이검증만

살펴보았다.

넷째,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11	70.6
	여	171	29.4
연령	26세 이상	146	25.1
	23-25세	104	17.9
	22세 이하	332	57.0
학력	고졸	529	90.9
	전문대졸	45	7.7
	대졸 이상	8	1.4
	학생	534	91.8
직업	사무직	5	.9
	판매, 영업직	2	.3
	전문기술직	18	3.1
	서비스직	8	1.4
	가정주부	7	1.2
	기타	8	1.4
	기타	8	1.4
결혼여부	기혼	24	4.1
	미혼	557	95.7
	기타	1	.2
거주지	대도시	291	50.0
	중도시	224	38.5
	소도시	67	11.5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21.8
	100-200만원	204	35.1
	200-300만원	158	27.1
	300만원 이상	93	16.0
합계		582	100.0

<표IV-3> 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582명의 남녀비율은 남성이 70.6%, 여성이 29.4%로 대부분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6세 이상이 25.1%, 23-25세가 17.9%, 22세 이하가 57.0%이었다. 학력별

로는 고졸이 9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졸은 7.7%, 대졸 이상은 1.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직은 0.9%, 판매, 영업직은 3.1%, 전문기술직은 3.1%, 서비스직은 1.4%, 가정주부는 1.2%, 기타는 1.4%이었다. 결혼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미혼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혼은 4.1%이었다.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50.0%, 중도시 거주자 38.5%, 소도시 거주자 11.5%이었으며, 월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21.8%, 100-200만원이 35.1%, 200-300만원이 27.1%, 300만원 이상이 16.0%로 나타났다.

4. 조사 결과 분석

1) 참여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

참여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표IV-4>에서와 같이 직업기술 전문교육이 81.4%로 가장 많았고, 기초, 교양, 문화소양 교육이 16.3%이었으며 시민의식, 환경관련 교육과 직무개선 연수는 각각 0.2%와 0.9%로 매우 적었다.

참여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에 대해 거주지와 월수입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4>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

[단위: 명 (백분율)]

구 분	직업기술 전문교육	기초, 교양, 문화소양교육	시민의식, 환경관련 교육	직무개선 연수	기타	전체	χ^2 (p)	
성 별	남	338 (82.2)	63 (15.3)	1 (0.2)	4 (1.0)	5 (1.2)	411 (100.0)	1.59 (.811)
	여	136 (79.5)	32 (18.7)	0 (0.0)	1 (0.6)	2 (1.2)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239 (82.1)	44 (15.1)	1 (0.3)	4 (1.4)	3 (1.0)	291 (100.0)	16.73 * (.033)
	중도시	189 (84.4)	30 (13.4)	0 (0.0)	1 (0.4)	4 (1.8)	224 (100.0)	
	소도시	46 (68.7)	21 (31.3)	0 (0.0)	0 (0.0)	0 (.0)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8 (85.0)	13 (10.2)	0 (0.0)	1 (0.8)	5 (3.9)	127 (100.0)	34.59 *** (.001)
	100- 200만원	176 (86.3)	28 (13.7)	0 (0.0)	0 (0.0)	0 (.0)	204 (100.0)	
	200- 300만원	119 (75.3)	37 (23.4)	0 (0.0)	1 (0.6)	1 (.6)	158 (100.0)	
	300만원 이상	71 (76.3)	17 (18.3)	1 (1.1)	3 (3.2)	1 (1.1)	93 (100.0)	
	전 체	474 (81.4)	95 (16.3)	1 (0.2)	5 (0.9)	7 (1.2)	582 (100.0)	

* p<.05 *** p<.001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직업기술 전문 교육을 주로 학습한다는 응답은 중도시가 84.4%로 가장 높았고 소도시는 68.7%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으며, 기초, 교양, 문화소양 교육이 주된 내용이라는 응답은 소도시가 31.3%로 타 지역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p<.05).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직업기술전문 교육이 주된 내용이라는 응답은 월수입이 100-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가장 많은 응답(86.3%)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인 집단(85.0%)으로 나타났다. 기초, 교양, 문화수양 교육이 주된 내용이라는 응답은 월소득 200-300만원 이하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은 생계와 연결되는 직업기술전문교육이 주된

내용인 반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은 교양, 문화 교육이 보다 주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2) 학점 은행제 참여 동기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표IV-5> 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5>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

[단위:명(백분율)]

구 분		취업, 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학점 또는 졸업장 취득	직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	폭넓은 교양 증진	기타	전체	χ^2 (p)
성 별	남	201 (48.9)	144 (35.0)	47 (11.4)	8 (1.9)	11 (2.7)	411 (100.0)	30.14 *** (.000)
	여	51 (29.8)	76 (44.4)	41 (24.0)	3 (1.8)	0 (0.0)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125 (43.0)	104 (35.7)	48 (16.5)	7 (2.4)	7 (2.4)	291 (100.0)	4.00 (.857)
	중도시	98 (43.8)	89 (39.7)	30 (13.4)	3 (1.3)	4 (1.8)	224 (100.0)	
	소도시	29 (43.3)	27 (40.3)	10 (14.9)	1 (1.5)	0 (0.0)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52 (40.9)	50 (39.4)	19 (15.0)	2 (1.6)	4 (3.1)	127 (100.0)	21.91 * (.039)
	100- 200만원	100 (49.0)	72 (35.3)	27 (13.2)	2 (1.0)	3 (1.5)	204 (100.0)	
	200- 300만원	61 (38.6)	70 (44.3)	24 (15.2)	1 (0.6)	2 (1.3)	158 (100.0)	
	300만원 이상	39 (41.9)	28 (30.1)	18 (19.4)	6 (6.5)	2 (2.2)	93 (100.0)	
	전 체	252 (43.3)	220 (37.8)	88 (15.1)	11 (1.9)	11 (1.9)	582 (100.0)	

** $p<.05$ *** $p<.01$ **** $p<.001$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취업·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가 43.3%, 학점 또는 졸업장 취득을 위하여가 37.8%, 직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가 5.1%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점 은행제 참여동기에 대해 성별, 월수입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취업·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남자가 48.9%로 여자의 2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장 취득과 직무능력향상(전문성 함양)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취업·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월수입 100-200만원 집단이 49.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학점, 졸업장 취득을 위해서라는 동기는 월수입 200-300만원 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3)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

부담하는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표IV-6>에서와 같이 120만원 이상이 37.6%로 가장 많았고, 20-40만원이 22.5%, 20만원 미만이 20.6%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에 대해 성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2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여자가 44.4%로 남자의 34.8%보다 높게 나타났고, 2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여자가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20-40만원과 60-80만원이라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p<.001$).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12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는데 대도시는 45.7%, 중도시는 31.7%, 소도시는 22.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표 IV-6>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

[단위:명(백분율)]

구 분		전혀 없음	20 만원 미만	20- 40만원	40- 60만원	60- 80만원	80- 100 만원	100- 120 만원	120 만원 이상	전체	χ^2 (p)
성 별	남	4 (1.0)	70 (17.0)	114 (27.7)	44 (10.7)	17 (4.1)	13 (3.2)	6 (1.5)	143 (34.8)	411 (100.0)	32.79 ***
	여	0 (0.0)	50 (29.2)	17 (9.9)	12 (7.0)	6 (3.5)	6 (3.5)	4 (2.3)	76 (44.4)	171 (100.0)	(.000)
거주지	대도시	1 (0.3)	61 (21.0)	57 (19.6)	19 (6.5)	7 (2.4)	6 (2.1)	7 (2.4)	133 (45.7)	291 (100.0)	32.93 **
	중도시	2 (0.9)	47 (21.0)	51 (22.8)	27 (12.1)	13 (5.8)	11 (4.9)	2 (0.9)	71 (31.7)	224 (100.0)	(.003)
	소도시	1 (1.5)	12 (17.9)	23 (34.3)	10 (14.9)	3 (4.5)	2 (3.0)	1 (1.5)	15 (22.4)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2 (1.6)	28 (22.0)	33 (26.0)	13 (10.2)	4 (3.1)	6 (4.7)	2 (1.6)	39 (30.7)	127 (100.0)	22.26 (.385)
	100-200만원	1 (0.5)	36 (17.6)	55 (27.0)	20 (9.8)	10 (4.9)	7 (3.4)	2 (1.0)	73 (35.8)	204 (100.0)	
	200-300만원	1 (0.6)	33 (20.9)	32 (20.3)	15 (9.5)	6 (3.8)	3 (1.9)	2 (1.3)	66 (41.8)	158 (100.0)	
	300만원 이상	0 (0.0)	23 (24.7)	11 (11.8)	8 (8.6)	3 (3.2)	3 (3.2)	4 (4.3)	41 (44.1)	93 (100.0)	
전 체		4 (0.7)	120 (20.6)	131 (22.5)	56 (9.6)	23 (4.0)	19 (3.3)	10 (1.7)	219 (37.6)	582 (100.0)	

** $p<.01$ *** $p<.001$

4) 학점 은행제 참여시 교육비 부담 주체

<표IV-7>와 같이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를 주로 부담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가족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1.7%, 본인과 직장 또는 국가 공동 부담이 1.5%로 나타났다.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성별, 거주지별, 월수입별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 학점 은행제 참여시 교육비 부담 주체

[단위:명(백분율)]

구 분		본인 또는 가족	고용보험	소속 단체나 직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교육 실시 기관	본인과 직장 또는 국가의 공동부담	기타	전체	χ^2 (p)
성 별	남	388 (94.4)	3 (0.7)	1 (0.2)	8 (1.9)	3 (0.7)	7 (1.7)	1 (0.2)	411 (100.0)	4.11 (.662)
	여	167 (97.7)	0 (0.0)	0 (0.0)	2 (1.2)	0 (0.0)	2 (1.2)	0 (0.0)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279 (95.9)	0 (0.0)	0 (0.0)	7 (2.4)	1 (0.3)	3 (1.0)	1 (0.3)	291 (100.0)	18.89 (.091)
	중도시	214 (95.5)	2 (0.9)	1 (0.4)	3 (1.3)	2 (0.9)	2 (0.9)	0 (0.0)	224 (100.0)	
	소도시	62 (92.5)	1 (1.5)	0 (0.0)	0 (0.0)	0 (0.0)	4 (6.0)	0 (0.0)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17 (92.1)	1 (0.8)	0 (0.0)	3 (2.4)	0 (0.0)	6 (4.7)	0 (0.0)	127 (100.0)	27.30 (.074)
	100-200만원	197 (96.6)	0 (0.0)	1 (0.5)	4 (2.0)	1 (0.5)	0 (0.0)	1 (0.5)	204 (100.0)	
	200-300만원	151 (95.6)	0 (0.0)	0 (0.0)	3 (1.9)	2 (1.3)	2 (1.3)	0 (0.0)	158 (100.0)	
	300만원 이상	90 (96.8)	2 (2.2)	0 (0.0)	0 (0.0)	0 (0.0)	1 (1.1)	0 (0.0)	93 (100.0)	
전 체		555 (95.4)	3 (0.5)	1 (0.2)	10 (1.7)	3 (0.5)	9 (1.5)	1 (0.2)	582 (100.0)	

5) 프로그램을 선택에 영향을 끼친 매체

<표IV-8>와 같이 현재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정보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인터넷 또는 PC 통신이 35.7%로 가장 많았고, 주위 사람의 권유가 29.6%, 신문 및 광고 전단이 10.8%, 직접 문의가 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8>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끼친 매체

[단위:명(백분율)]

구 분		신문 및 광고 전단	방송 매체	전화 및 방문 면담	인터넷 또는 PC 통신	주위 사람의 권유	직접 기관 문의	기타	전체	χ^2 (p)
성 별	남	46 (11.2)	13 (3.2)	14 (3.4)	139 (33.8)	134 (32.6)	48 (11.7)	17 (4.1)	411 (100.0)	15.91 * (.014)
	여	17 (9.9)	8 (4.7)	15 (8.8)	69 (40.4)	38 (22.2)	14 (8.2)	10 (5.8)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37 (12.7)	15 (5.2)	14 (4.8)	108 (37.1)	68 (23.4)	37 (12.7)	12 (4.1)	291 (100.0)	20.39 (.060)
	중도시	22 (9.8)	5 (2.2)	9 (4.0)	76 (33.9)	79 (35.3)	21 (9.4)	12 (5.4)	224 (100.0)	
	소도시	4 (6.0)	1 (1.5)	6 (9.0)	24 (35.8)	25 (37.3)	4 (6.0)	3 (4.5)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3 (10.2)	4 (3.1)	3 (2.4)	47 (37.0)	40 (31.5)	12 (9.4)	8 (6.3)	127 (100.0)	15.38 (.636)
	100-200만원	22 (10.8)	5 (2.5)	9 (4.4)	73 (35.8)	66 (32.4)	22 (10.8)	7 (3.4)	204 (100.0)	
	200-300만원	15 (9.5)	6 (3.8)	10 (6.3)	55 (34.8)	48 (30.4)	15 (9.5)	9 (5.7)	158 (100.0)	
	300만원 이상	13 (14.0)	6 (6.5)	7 (7.5)	33 (35.5)	18 (19.4)	13 (14.0)	3 (3.2)	93 (100.0)	
전 체		63 (10.8)	21 (3.6)	29 (5.0)	208 (35.7)	172 (29.6)	62 (10.7)	27 (4.6)	582 (100.0)	

p<.05

현재의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정보매

체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또는 PC통신이라는 응답은 여자가 40.4%로 남자보다 높았고, 주위 사람의 권유와 신문 및 광고전단이라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6) 학점 은행제 참여의 기대 영역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영역에 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M=4.29$)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직활동($M=3.79$),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M=3.78$), 학업이나 업무능력개선($M=3.77$), 인간관계 개선($M=3.55$), 사회변화에 적응($M=3.41$), 사회활동에 참여($M=3.30$), 교양함양($M=3.20$), 여가선용($M=2.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현재의 학습이 교양함양이나 여가선용의 필요라기보다는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영역별 집단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업이나 업무능력개선

<표IV-9>와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에 관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은 높게($M=3.77$) 나타났다. 성별 및 거주지,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한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에 대한 인식은 성별 및 거주지, 월수입에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학업이나 업무능력개선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79	.92	.30	.582
	여	171	3.74	.88		
거주지	대도시	291	3.82	.85	1.71	.183
	중도시	224	3.69	.98		
	소도시	67	3.85	.93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76	1.02	.59	.621
	100-200만원	204	3.75	.90		
	200-300만원	158	3.85	.88		
	300만원 이상	93	3.72	.85		
전 체		582	3.77	.91		

*p<.05

②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표IV-10>와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M=4.29).

<표 IV-10>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4.33	.79	3.82	.051
	여	171	4.19	.81		
거주지	대도시	291	4.23	.76	1.38	.253
	중도시	224	4.33	.86		
	소도시	67	4.37	.76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4.30	.90	.94	.422
	100-200만원	204	4.31	.78		
	200-300만원	158	4.32	.73		
	300만원 이상	93	4.16	.81		
전 체		582	4.29	.80		

성별, 거주지별,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

나 교육이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여가선용

<표IV-11>와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서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M=2.95) 인식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M=3.12) 남성(M=2.88)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이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5).

<표 IV-11> 여가선용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2.88	1.10	6.20*	.013
	여	171	3.12	.98		
거주지	대도시	291	2.99	1.06	.66	.516
	중도시	224	2.88	1.08		
	소도시	67	2.96	1.08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2.98	1.18	1.44	.230
	100-200만원	204	2.83	1.05		
	200-300만원	158	2.99	.96		
	300만원 이상	93	3.08	1.11		
전 체		582	2.95	1.07		

* p<.05

거주지별,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거주지, 월수입과 관계 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한 여가선용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구직활동(취업)

<표IV-12>와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구직(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체 조사대상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M=3.79). 각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이 학생신분인 조사대상자들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표 IV-12> 구직활동(취업)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79	.96	.00	.989
	여	171	3.79	1.05		
거주지	대도시	291	3.83	.94	1.90	.151
	중도시	224	3.70	1.05		
	소도시	67	3.93	.94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82	1.06	.75	.522
	100-200만원	204	3.78	1.00		
	200-300만원	158	3.85	.96		
	300만원 이상	93	3.67	.91		
전 체		582	3.79	.99		

⑤ 사회변화에 적응

<표IV-13>과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사회변

화에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M=3.41). 집단간 비교에서는 거주지 별,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만 보였는데 남성(M=3.36)보다 여성(M=3.54)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IV-13> 사회변화에 적응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36	.96	4.19*	.041
	여	171	3.54	.94		
거주지	대도시	291	3.44	.94	.88	.415
	중도시	224	3.42	.96		
	소도시	67	3.27	1.0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43	1.05	.20	.896
	100-200만원	204	3.40	.97		
	200-300만원	158	3.38	.89		
	300만원 이상	93	3.47	.94		
전 체		582	3.41	.96		

*p<.05

즉, 거주지, 월수입과 관계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회변화에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교양 함양

<표IV-14>와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전체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였다(M=3.20). 집단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거주지, 월수입과는 통계적으로 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M=3.46) 남성(M=3.10)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의수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4> 교양 함양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10	.95	16.98***	.000
	여	171	3.46	1.02		
거주지	대도시	291	3.24	.95	.84	.432
	중도시	224	3.14	1.04		
	소도시	67	3.27	.96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15	1.02	.92	.429
	100-200만원	204	3.15	.97		
	200-300만원	158	3.24	.98		
	300만원 이상	93	3.33	.99		
전 체		582	3.20	.99		

$p < .05$ *** $p < .001$

⑦ 사회활동에 참여

<표IV-15>와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은 다소 낮은 반응으로 나타났다($M=3.30$).

<표 IV-15> 사회활동에 참여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25	.97	3.23	.073
	여	171	3.41	1.03		
거주지	대도시	291	3.34	.96	.93	.395
	중도시	224	3.28	.98		
	소도시	67	3.16	1.11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35	1.06	.92	.431
	100-200만원	204	3.21	1.00		
	200-300만원	158	3.30	.94		
	300만원 이상	93	3.39	.94		
전 체		582	3.30	.99		

성별, 거주지,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은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

<표IV-16>과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전체 응답자들은 다소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M=3.78). 성별, 거주지,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하는데 줄 수 있는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77	.98	.19	.664
	여	171	3.80	.94		
거주지	대도시	291	3.79	.91	.96	.383
	중도시	224	3.73	1.03		
	소도시	67	3.91	.95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81	.93	.66	.574
	100-200만원	204	3.83	.99		
	200-300만원	158	3.75	.94		
	300만원 이상	93	3.68	1.00		
전 체		582	3.78	.96		

⑨ 인간관계 개선

<표IV-17>과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으로 인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전체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반응을 보였다(M=3.55). 성별, 거주지,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이 인간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인간관계 개선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50	1.01	3.54	.060
	여	171	3.67	.94		
거주지	대도시	291	3.53	.99	.24	.784
	중도시	224	3.59	.98		
	소도시	67	3.52	1.0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52	1.13	.07	.978
	100-200만원	204	3.56	.96		
	200-300만원	158	3.56	.95		
	300만원 이상	93	3.57	.94		
전 체		582	3.55	.99		

7)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의 하위영역으로 교수방법,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 관련 정보자료 제공, 교육비 수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은 교수방법에 관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M=3.53), 다음으로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M=3.31), 교육시설 및 장비(M=3.18), 교육비 수준(M=2.99)의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이나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만족도보

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수방법에 관하여 더 만족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비 수준에 관하여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교수방법

<표IV-18>과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에서 교수방법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M=3.53) 나타났다. 성별, 거주지,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현재 교수방법에 관한 만족도는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IV-18> 교수방법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56	.88	1.38	.241
	여	171	3.47	.80		
거주지	대도시	291	3.53	.81	.13	.882
	중도시	224	3.53	.93		
	소도시	67	3.58	.84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59	.97	.69	.558
	100-200만원	204	3.51	.91		
	200-300만원	158	3.57	.70		
	300만원 이상	93	3.44	.83		
전 체		582	3.53	.86		

② 교육시설 및 장비

<표IV-19>와 같이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해 전체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M=3.18).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만족도는 성별,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M=3.28) 여성(M=2.95)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소도시 지역의 응답자(M=3.46)일수록 교육시설 및 장비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소도시가 중도시나 대도시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중도시와 대都市는 동일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IV-19> 교육시설 및 장비

구 분		N	M	SD	t/F	p	Scheffe
성 별	남	411	3.28	1.00	12.82***	.000	
	여	171	2.95	.98			
거주지	대도시	291	3.13	1.00	3.02*	.050	소도시 > 대도시, 중도시
	중도시	224	3.16	1.02			
	소도시	67	3.46	.93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22	1.02	2.07	.102	
	100-200만원	204	3.12	1.03			
	200-300만원	158	3.32	.90			
	300만원 이상	93	3.03	1.07			
전 체		582	3.18	1.00			

* p<.05 *** p<.001

③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

<표IV-20>과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에서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만족도에서 전체 응답자들은(M=3.31) 다소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거주지, 월수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M=3.41)이 여성(M=3.07)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표 IV-20>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411	3.41	.87	18.16***	.000
	여	171	3.07	.92		
거주지	대도시	291	3.26	.87	1.94	.145
	중도시	224	3.33	.94		
	소도시	67	3.49	.89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3.35	.93	1.30	.274
	100-200만원	204	3.32	.89		
	200-300만원	158	3.37	.88		
	300만원 이상	93	3.15	.88		
전 체		582	3.31	.90		

*** p<.001

④ 교육비 수준

<표IV-21>과 같이 교육비 수준에 관한 만족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M=2.99)를 나타냈다.

교육비 수준에 관한 만족도에서 성별,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월수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M=3.09) 여성(M=2.75)에 비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소도시 거주자(M=3.36)가 대도시(M=2.89)나 중도시 거주자(M=3.00)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소도시가 대도시나 중도시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대도시와 중도시간에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IV-21> 교육비 수준

구 분		N	M	SD	t/F	p	Scheffe
성 별	남	411	3.09	1.11	11.91***	.001	소도시 > 중도시, 대도시
	여	171	2.75	.91			
거주지	대도시	291	2.89	.99	5.30**	.005	
	중도시	224	3.00	1.12			
	소도시	67	3.36	1.1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27	2.96	1.14	.35	.786	
	100-200만원	204	2.96	1.06			
	200-300만원	158	2.99	.96			
	300만원 이상	93	3.09	1.15			
전 체		582	2.99	1.06			

** p<.01 *** p<.001

8)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

<표IV-22>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을 전체 응답자로 살펴보면 이수 후 사회적 인정도 문제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이 2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점 은행제 안내 및 정보부족(18.8%),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부족(18.0%)이 함께 나타났으며 교육활동에 참가할 시간 부족도 4.6%로 나타났다. 즉,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이수 후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가에 관한 인정도 문제로 나타났고, 학점 은행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거주지, 월수입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배경 변인에 상관없이 애로점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

[단위:명(백분율)]

구 분	교육 활동에 참가할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학점 은행제 안내 및 정보 부족	적합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부족	이수 후 사회적 인정도 문제	기타	전체	χ ² (p)	
성 별	남	23 (5.6)	92 (22.4)	74 (18.0)	72 (17.5)	142 (34.5)	8 (1.9)	411 (100.0)	8.670 (.123)
	여	4 (2.3)	32 (18.7)	31 (18.1)	33 (19.3)	71 (41.5)	0 (0.0)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12 (4.1)	60 (20.6)	45 (15.5)	57 (19.6)	112 (38.5)	5 (1.7)	291 (100.0)	13.240 (.211)
	중도시	12 (5.4)	53 (23.7)	42 (18.8)	33 (14.7)	83 (37.1)	1 (0.4)	224 (100.0)	
	소도시	3 (4.5)	11 (16.4)	18 (26.9)	15 (22.4)	18 (26.9)	2 (3.0)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6 (4.7)	36 (28.3)	22 (17.3)	20 (15.7)	41 (32.3)	2 (1.6)	127 (100.0)	15.897 (.389)
	100-200만원	9 (4.4)	46 (22.5)	35 (17.2)	36 (17.6)	75 (36.8)	3 (1.5)	204 (100.0)	
	200-300만원	4 (2.5)	30 (19.0)	32 (20.3)	28 (17.7)	61 (38.6)	3 (1.9)	158 (100.0)	
	300만원 이상	8 (8.6)	12 (12.9)	16 (17.2)	21 (22.6)	36 (38.7)	0 (0.0)	93 (100.0)	
전 체	27 (4.6)	124 (21.3)	105 (18.0)	105 (18.0)	213 (36.6)	8 (1.4)	582 (100.0)		

9) 앞으로 받고 싶은 학점 은행제 관련 학습 내용

<표IV-23>와 같이 앞으로 받고 싶은 학점 은행제 관련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전체 응답자를 살펴보면 직업기술, 전문교육(자격증 취득 포함)이 53.3%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관련 교육이 26.6%로 나타나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거주지, 월수입과 관련하여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직업기술, 전문교육(자격증 취득 포함)에 관련된 내용은 남자가 54.5%로 여자의 50.3%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국어 관련 교육은 여자가 33.3%로 남자의 23.8%보다 높게 나타나 외국어에 관한 관심이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IV-23> 앞으로 받고 싶은 학점 은행제 관련 학습 내용
[단위:명(백분율)]

구 분		직업기술 전문교육	교양,문화 소양 교육	취미,오락, 여가 교육	외국어 관련교육	기타	전체	χ^2 (p)
성 별	남	224 (54.5)	29 (7.1)	58 (14.1)	98 (23.8)	2 (0.5)	411 (100.0)	10.566 * (.032)
	여	86 (50.3)	14 (8.2)	12 (7.0)	57 (33.3)	2 (1.2)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155 (53.3)	17 (5.8)	33 (11.3)	85 (29.2)	1 (0.3)	291 (100.0)	5.832 (.666)
	중도시	118 (52.7)	21 (9.4)	27 (12.1)	56 (25.0)	2 (0.9)	224 (100.0)	
	소도시	37 (55.2)	5 (7.5)	10 (14.9)	14 (20.9)	1 (1.5)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64 (50.4)	11 (8.7)	15 (11.8)	36 (28.3)	1 (0.8)	127 (100.0)	10.739 (.551)
	100-200만원	113 (55.4)	13 (6.4)	25 (12.3)	51 (25.0)	2 (1.0)	204 (100.0)	
	200-300만원	91 (57.6)	7 (4.4)	20 (12.7)	39 (24.7)	1 (0.6)	158 (100.0)	
	300만원 이상	42 (45.2)	12 (12.9)	10 (10.8)	29 (31.2)	0 (0.0)	93 (100.0)	
전 체		310 (53.3)	43 (7.4)	70 (12.0)	155 (26.6)	4 (0.7)	582 (100.0)	

* p<.05

10)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표IV-24>와 같이 학점 은행제와 관련한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1순위에 대한 전체 응답자를 살펴보면, 학점이나 학위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가 4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19.6%, 학점 은행제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15.3%, 교육비 지원이 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24>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1순위

[단위:명(백분율)]

구 분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점 은행제 안내 홍보	학점 은행제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학위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	교육 비용 지원	전체	χ^2 (p)
성 별	남	85 (20.7)	43 (10.5)	66 (16.1)	168 (40.9)	49 (11.9)	411 (100.0)	11.378* (.023)
	여	29 (17.0)	11 (6.4)	23 (13.5)	95 (55.6)	13 (7.6)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59 (20.3)	32 (11.0)	42 (14.4)	129 (44.3)	29 (10.0)	291 (100.0)	6.976 (.539)
	중도시	41 (18.3)	14 (6.3)	40 (17.9)	102 (45.5)	27 (12.1)	224 (100.0)	
	소도시	14 (20.9)	8 (11.9)	7 (10.4)	32 (47.8)	6 (9.0)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29 (22.8)	8 (6.3)	23 (18.1)	51 (40.2)	16 (12.6)	127 (100.0)	21.513* (.043)
	100-200만원	36 (17.6)	20 (9.8)	26 (12.7)	89 (43.6)	33 (16.2)	204 (100.0)	
	200-300만원	27 (17.1)	17 (10.8)	27 (17.1)	77 (48.7)	10 (6.3)	158 (100.0)	
	300만원 이상	22 (23.7)	9 (9.7)	13 (14.0)	46 (49.5)	3 (3.2)	93 (100.0)	
전 체		114 (19.6)	54 (9.3)	89 (15.3)	263 (45.2)	62 (10.7)	582 (100.0)	

* p<.05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1순위에 관해 성별,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학점이나 학위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라는 응답은 여성이(55.6%) 남성(40.9%)보다 높은 반면,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월수입에 따라서 살펴보면, 월수입이 높을수록 학점이나 학위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라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IV-25>와 같이 학점 은행제와 관련한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2순위에 대한 전체 응답자를 살펴보면, 학점 은행제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3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학점이나 학위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가 24.1%,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17.9%, 교육비용 지원이 14.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점 은행제와 관련한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2순위에 관해 성별, 거주지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반면,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수입별로는 100-200만원 집단과 200-300만원 집단이 각각 36.3%와 35.4%로 타 집단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IV-25>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2순위

[단위:명(백분율)]

구 분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점 은행제 안내 홍보	학점 은행제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학위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	교육 비용 지원	기타	전체	χ^2 (p)
성 별	남	72 (17.5)	34 (8.3)	130 (31.6)	102 (24.8)	72 (17.5)	1 (0.2)	411 (100.0)	10.294 (.067)
	여	32 (18.7)	21 (12.3)	64 (37.4)	38 (22.2)	15 (8.8)	1 (0.6)	171 (100.0)	
거주지	대도시	50 (17.2)	26 (8.9)	92 (31.6)	76 (26.1)	46 (15.8)	1 (0.3)	291 (100.0)	6.290 (.790)
	중도시	44 (19.6)	19 (8.5)	78 (34.8)	52 (23.2)	30 (13.4)	1 (0.4)	224 (100.0)	
	소도시	10 (14.9)	10 (14.9)	24 (35.8)	12 (17.9)	11 (16.4)	0 (0.0)	67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21 (16.5)	9 (7.1)	36 (28.3)	34 (26.8)	25 (19.7)	2 (1.6)	127 (100.0)	33.323 ** (.004)
	100- 200만원	43 (21.1)	12 (5.9)	74 (36.3)	47 (23.0)	28 (13.7)	0 (0.0)	204 (100.0)	
	200- 300만원	26 (16.5)	14 (8.9)	56 (35.4)	37 (23.4)	25 (15.8)	0 (0.0)	158 (100.0)	
	300만원 이상	14 (15.1)	20 (21.5)	28 (30.1)	22 (23.7)	9 (9.7)	0 (0.0)	93 (100.0)	
전 체		104 (17.9)	55 (9.5)	194 (33.3)	140 (24.1)	87 (14.9)	2 (0.3)	582 (100.0)	

** p<.01

V. 직업교육을 위한 학점 은행제의 운영실태분석(Ⅱ): 심층면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점 은행제 운영방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점 은행제 운영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통해 학점 은행제 운영, 학습과목 운영 및 개발, 학점 은행제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리·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점 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업과 관련하여 참여했던 학점 은행제 과목에 대한 만족도, 교육비 수준, 강조되어야 할 학습과목들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리·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개별면담으로써 심층면담지(부록참조)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근무기관은 서울지역의 H항공학원, H자동차정비학원, L패션학원, H요리학원, Y미용학원, 경기지역의 D직업전문학교였다. 조사기간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의 경우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였다.

1. 운영자 면담

1) 대상

A: 1998년 학점 은행제 시범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학사 학위를 소지한 40대 남자선생님이다.

B: 1998년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00년 2월 제1회 전문학사를 배출한 교육기관의 운영자이며 공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직접 강의도 담당하고 있는 30대 남자 선생님이다.

- C: 대학원 공학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4년의 30대 남자 선생님이다.
- D: 경력 12년의 40대 여자 선생님께서 1998년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으며 문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 E: 디자인 계열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학점 은행제 업무담당 경력 1년의 30대 여자 선생님이다.
- F: 학점 은행제 업무담당 경력 1년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한 20대 여자 선생님이다.

2) 면담내용

1.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어떠한 홍보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A. 인터넷과 팜플렛, 신문, 광고 등을 이용합니다.
- B. 인터넷과 신문에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C. 지역정보지를 통해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따로 만들어 홍보도 겸하고 있습니다.
- D.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합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를 찾아가 직접 홍보도 합니다.
- E.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벽보에 붙이기도 합니다.
- F. TV,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어서 인터넷만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메일발송도 하고요.

홍보수단과 관련하여 대부분 인터넷 홍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외 지역정보지나 홍보 포스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이할 점은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육과정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도 이러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2.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수강료를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 A. 학점당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이론과 실습을 나눠서요.
- B. 학점당 받고 있어요.
- C. 수강료는 과목당 신청하는 데로 받고 있습니다.
- D. 신청학점당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 E. 등록금에 포함해서 학점당 받고 있어요
- F. 과목당 수강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은 학기별로 납부합니다.

수강료는 학점당 등록금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납기간은 학기단위인 점을 알 수 있다.

3.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강의에 쓰이는 교재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십니까?

- A. 기존의 활용도가 높은 강의용 교재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 학습 흐름을 조정하며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 B. 주 교재는 출간된 책자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고, 부교재는 강사가 직접 개발하여 배부합니다.

- C. 이론을 배울 때는 기존에 출판된 책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실기실습에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실습교재를 사용합니다.
- D. 강사선생님들이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시고 기존에 출판된 책을 씁니다.
- E. 강사선생님들이 개발하고 만든 자료를 사용합니다.
- F.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강사선생님들이 선정하여 쓰고 있습니다.

주 교재는 기존에 출판된 책을 사용하고 교재 개발시 실습에 관하여서는 주로 그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고 강사선생님들이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을 알 수 있었다.

4.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은 교재를 교육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게 하십니까?

- A. 학기가 시작되면 신청한 학생들 인원수에 맞게 일괄 단체로 구입합니다.
- B. 주교재는 각자 구매하도록 하고 부교재는 학원에서 배부합니다.
- C. 학생 본인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합니다.
- D. 학기 시작한 후 단체로 구입합니다.
- E. 학원에서 단체로 구입한 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F. 교재구입에 관해 학원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합니다.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단체로 구입도 하더군요.

주교재는 학생 각자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학원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앞서 면담사실에서 알 수 있었듯이 부교재는 실습과 관련하여 강사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하므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A. 저희 기관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평생교육사 배치에 따른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학생관리의 측면은 다수의 교수들이 전담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 B.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주된 역할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자들을 면담하고, 교·강사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C. 현재는 평생교육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의 규모가 작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중 00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받고 계신 분이 계시요. 그 선생님이 자격취득하면 우리도 평생교육사가 계신 거죠.
- D. 2명 있습니다. 학생상담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E. 예,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상담과 과정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F.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상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가 대체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없는 기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를 들고 있었다. 평생교육사 업무인 교육과정 계획, 개발, 평가, 상담과 더불어 교육 전과정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관해 고려해 볼 때 평생교육사 배치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6. 학점 은행제 실습관련 학습과목 개설시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A. 3학점을 이수하려면 5시간을 해야 하니까 학생들 스스로 학점을 이수하는데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던지, 아니면 시간 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학점 은행제 취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표준 교육과정이라 하여 경력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 표준교육과정을 위주로 정해진 틀 속에서 맞추려 하지 말고 학위취득 인정 기관 요건을 강화해서 그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아요.
- B. 실습시간을 학습자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가 수강할 경우 실습의 수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은 기본배경이 천차만별이에요. 실력이 있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경우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업교육을 받으며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구요. 이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맞추면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준별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반 편성을 하다 보니 한 반에 수강인원이 2-3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 성인학습자에게 적절한 수업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요.
- C.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실업자 훈련 같은 과목과 동일 과목을 학생들에게도 실시하므로 개설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 D. 글썽요. 애로점이라는데 저희는 없는데요.
- E. 기존에 하던 과목 그대로 실습하고, 제가 이 업무를 받고 개설한 것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F. 단위를 이수하는데 드는 시간에 비해 학점이 낮죠. 실습 시간과 학점이 2:1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교과목 시간 편성할 때 실습시간 확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지요. 그리고 대학처럼 교육과정이 일주일에 한 과정 3시간하고 그 과정을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3시간 이렇게 15주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쉬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실습기능이 향상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심화수업을 하려면 연속해서 해야 하는데요. 15번 수업을 15주에 걸쳐 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실습을 하면 실력이 더 향상될 거 같아요. 학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해요.

실습관련 학습과목 개설시 학생들의 수준차이로 인한 수업내용에 관한 수준조절, 즉 난이도 조절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경력자가 단지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입학했을 경우와 이제 기술을 배우며 더불어 학위까지 취득하려는 학생과 그 격차는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원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분반하여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직업적인 기술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그 경력을 학점화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학습과목 운영에 대해 주기적으로 학습자 요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십니까?

- A. 실시합니다. 학기말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죠.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에 활용합니다.
- B. 실시하죠.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돌리고 면담도 합니다. 그 결과를 수업 내용에 반영하죠.

- C. 예, 설문지를 돌리고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본교에 대한 개선 내용이 있으면 즉시 시행조치하고 있습니다.
- D. 합니다. 수업종료 후 설문지 돌려 조사하고 1:1 학생 상담도 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선사항들을 게재합니다.
- E. 조사합니다. 교과목 별로 선생님들이 1:1 면담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 반영을 하지요.
- F. 학기말에 실시합니다. 강의 평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돌리고 담당 선생님들에게 평가내용을 공지하고 차기 교육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면 학습과목 운영에 대해 학습자 수업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지, 면담, 평가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는 곳도 있어 학생과 기관과의 상호 의사소통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원의 내실화와 질적향상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기대된다.

8.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A.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공과의 연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B. 능력있는 교강사 선생님들과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활용도를 가장 크게 고려하죠.
- C. 실업자 훈련, 취업과의 관련성, 고용촉진 훈련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고

려합니다.

- D. 교수요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시설과 같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 E. 실습위주의 학습과목으로 편성되었는가를 먼저 고려하죠.
- F.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교과목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해야 하니까요.

학습과목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실습을 위주로 전공과의 관련성, 현장의 활용도 정도, 취업과의 관련성, 고용촉진 훈련과의 상관관계, 교수요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학원이 기술계 학원이라는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항으로 수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 학점 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의 학습자들이 도중에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A. 있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재정적인 이유로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 B. 있어요, 학위취득을 위해 천천히 느긋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시간이 부족하고 학비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 C. 있습니다.
- D. 학점 은행제 신청했다고 해서 100% 모두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취득율은 우리 같은 경우 약 65%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학위 받고 소용없나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E. 우리기관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끝까지 다 하더라도요.

F. 대략 30% 정도 중단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다행히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하기 않는 기관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 직장인 경우는 시간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학위취득 후 학위의 유용성에 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점이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열심히 내실화에 기하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학위취득이 개인적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체제 즉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학자금 대출 문제라든가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 학습자들이 참여하는데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홍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학점 은행제에 대해 잘 몰라요.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지요.

B.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자격증 받으려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학위취득을 위한 시간을 또 내야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도요. 그냥 자격증만 따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직업계 학원에서 학위취득을 해도 자격증을 따려고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경우는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한 차이죠. 분명히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도 대학학위인데 말이죠. 안타깝죠.

- C. 직장인이 야간에 자기 직업분야에 관해 실력을 쌓으려 수강하는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점 은행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도 안되고 직장에서 본인이나 자녀 학자금 보조나 소득공제 대상도 안됩니다. 대학생들과 대우를 같게 해 줘야 많이 참여할 거 같아요.
- D.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위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나 하는 걱정을 하죠.
- E. 학생들이 학점 은행제에 대해 잘 몰라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야간에 수업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교양과목을 인근 대학에 가서 들어야 하는데 시간대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젊은 주부들도 많이 신청해서 듣는데 오전에 전공실무를 교육받고 오후에 교양과목을 신청해서 인근 대학에 가서 듣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오는 오후에 주로 교양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F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대가 주중, 오전, 오후, 야간, 주말반 등등 개설되면 좋겠어요.
- F.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받고도 정규대학과 차별이 있어서 학생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선뜻 못 하더라고요. 등록금 대출경우만 봐도 여기선 학자금 대출 못 받아요.

앞서 지적한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정문제, 홍보문제, 재정적 문제가 다시금 언급되며, 특히 직장인 경우 수업을 받고 싶어도 야간에 개설하는 경우가 드물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주말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말반, 야간반을 개설하는 것과 수업료도 학자금 대출이나 직장에서의 소득공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11. 학점 은행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A. 학점 은행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이 좀 더 수월해지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학점 은행제를 대학처럼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방학이나 학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에도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대상인데 학위취득을 너무 대학생 생활 위주로 계획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의 패턴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학원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B. 수업시간 배정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별 평가인정이 아니라 기관 평가인정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기관의 질 평가를 강화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 기관에게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성인학습자에게는 수업과목과 시간의 융통성, 장소의 융통성이 더 필요하거든요.
- C. 사회적인 인식이 가장 절실해요.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먼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 D. 학점 은행제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고 홍보를 강화해서 탈락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많아지면 인식도 좀 더 좋아질 것이구요.
- E. 학점 은행제 운영에 관한 안내 지침서(매뉴얼)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홍보를 하면 운영이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 해 업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 경우는 연륜이 쌓여 잘 하시는데 새로 맡은 선생님들은 사실 잘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F.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문제지요. 대학 못 가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한 사람도 더 공부하고 평생학습차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점 은행제에 관해 아는 사람만이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 안내받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 등록하면서 이제 서야 이런 제도도 있었네 하며 관심을 보이는데 모집기간이 길어야 한달, 짧으면 2주일 정도 인데 뒤늦게 알아 등록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도 추가등록 있듯이 이 제도에도 추가등록기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학원자체에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죠. 학점 은행제 정보를 안다면 그 제도 자체에 메리트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증대와 재정지원, 대학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도록 학습사회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의 과목별 평가인정 방식을 탈피하여 기관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즉 그 기관의 질을 평가하여 그 기관의 수준이 향상되고 강화되도록 하여 그 기관의 수업내용 등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 성인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간의 융통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을 뿐더러 장애요소도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대학에 주어진 추가등록 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학점 은행제 운영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받는다.

2. 졸업생 면담

1) 대상

- A : 기존에 전문학사 학위가 있지만 조리사가 되고 싶어 복수학위로 1년만에 조리학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호텔 주방에 취직하여 경력 2년차인 졸업생.
- B : 전기기사 전문학사 학위를 2년에 걸쳐 취득하고 전기설비와 관련된 직종에서 경력 2년차인 졸업생.
- C : 조리학 전문학사 학위를 2년에 걸쳐 취득하고 현재 호텔 주방에 취직하고 경력 1년차인 졸업생.

2) 면담내용

1. 현재 직무와 관련해 학점 은행제 전공과의 일치 여부는 어느 정도 인니까?

A : 저는 호텔 조리학과 졸업하고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운것은 이론, 실기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실력을 요구하거든요. 전공과 일치하지만 좀더 깊게 배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기본적인 것 바탕으로 주방에서 배운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배우는 정도로는 현장에 가서 바로 활용이 못 됩니다. 실습위주로 하긴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수업 받으면서 공부할 때는 학점 은행제 좋

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력이 문제더라고요.

B : 제가 배운 전공과목과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100% 일치합니다. 그 점은 제가 만족하고 있죠.

C : 100% 일치하지 않습디만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학습하고 있죠.

직무와 관련해 학점 은행제 전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학점 은행제는 직업생활 진입에의 최소한의 요건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라는데 면담자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2. 승진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A : 승진에 기여하는 데는 학위가 중요하지 않고.. 별로 승진에 기여를 못하는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실력이 중요해요. 학위가 있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력이 있어야 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과 경력이 중요한 것이예요. 승진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격증도 있으나 없으나 별 관계가 없고 면접해서 들어올 때 학위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하죠.

B: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에 승진에 대한 기여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C : 이제 취업을 해서 승진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그런데 학점 은행제의 학위취득으로만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승진과 관련해서 학점 은행제를 통한 학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실력과 개인의 능력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현 직무 능력을 개선하는 정도는 전공 관련 지식과 교양 분야 중 어느 것이 더 기여합니까?

A : 교양 분야보다는 전공 관련 지식이 직무능력에 더 도움이 되죠. 되죠. 교양이라는 것이 일하고 상관없이 듣고, 전체적으로 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교양 필수 과목이 있고 이것이 졸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긴 하는데 조금 줄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교양과목을 필수 말고 선택으로 다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니깐요.. 그리고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을 더 많이 늘리고요.

B : 전공과 일치는 하지만 직무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한 60% 정도될까요.

C : 직무 능력 개선에는 그래도 전공 관련 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직무와 연계성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어차피 차이가 있잖아요.

직무능력 개선을 위해 전공관련 지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관련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관련 과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 직무와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실력을 쌓기 위해 이들이 노력을 많이 하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교양과목을 모두 선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교양보다 전공과목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의 발로라 보인다.

4. 수강 시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과 현 직업세계와는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A : 직접도움은 없고요, 기본적인 것은 100%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되긴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일하니까 도움을 받은 거죠?

B : 거의 일치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70%정도 일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C :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수강당시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과 현재 직업세계와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기관과 교육개발원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5. 교육비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A : 과목당 학비만 봐서는 괜찮은거 같아요. 학점 은행제라는게 학점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학위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공부하는 경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학위를 받기 위해 다른 모든 일을 쉬고 한꺼번에 내야 하니까 실습비, 교양과목 학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1년 안에 학위를 취득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복수학위예요. 다른 학위가 있는데 하나 더 하려고 학점 은행제 신청했거든요. 복수전공이라 교양과목은 덜 했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B : 교육비 수준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C : 교육비 수준은 적당해요. 제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데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위를 취득하고 직장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졸업생의 경우는 교육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앞에서 담당교사들과 현재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언급한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학생들은 학위 취득에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점 은행제 전공이나 학습과목,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실습에 더 많은 시간을 배당해야 될 것 같아요.

B : 제가 보기에 전문대 과정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자면 전공분야에서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깊게 들어가지 않고 조금 배우고 그만 배우는 과목 등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박겉핥기 식의 교육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불필요한 과목은 자신이 직접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기 전공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기업에서는 다양성보다는 한 분야에서의 기술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공의 세분화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 : 실무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하지 않을까 해요. 조리분야이므로 실습을 위주로 학습을 한다든지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를 위주로 학습을 더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학점 은행제 전공이나 학습과목,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 실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도있게 세분화하여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산업체와 연계된 직업교육 그리고 실무에 투입되어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습을 많이 하길 원하고 있다.

7. 학점 은행제가 산업체와 연계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습을 많이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습을 많이해서 나가면 현장에서 자신이 생기거든요.

B : 지금의 교육과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내용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다고 봅니다.

C : 아직은 많은 직장에서 학점 은행제에 대해 알지를 못해서 직장에 다니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의 의식 변화와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업체와 연계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신감이 생기도록 실습을 많이하길 바라고 있으며 직장자체에서 학점 은행제에 관한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직장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귀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학점 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위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업체에서 학점 은행제 인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 어느 학위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나와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학점을 받아서 무슨 소용 있나? 왜 돈을 들이냐? 시간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실전 경험을 더 쌓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니면서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것 배워 많이 도움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일반대학교처럼 대우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00여대에서 다른 교양 과목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학교 총장명의로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니면서 많이 배워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 만족감이 있었는데, 소속감이 없어요. 어느 전문대, 어느 대학교 이렇게 학벌 따지니까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알아 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니까 사실 후배들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장학금이나 다른 일반대학교처럼 대우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B :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크다고 느꼈습니다. 일반 대기업은 모르지만, 현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학점 은행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인식도가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 제가 느낀점은 검정고시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된 느낌 이랄까... .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회적 인식에 매우 힘써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4년제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C : 학점 은행제는 많은 이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였지만 공부는 시켜놓고 사후 취업이나 편입의 길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정규대학과의 동등한 인식이 무

엇보다 중요하며 개인으로서도 어려운 학습의 시작이므로 곱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검정고시 정도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준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학습 과목을 일반대학에서 하는 수준으로 평가인정받는 기관에서 이론과 실습, 재정적 투자를 해서 취득한 학위지만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그들의 실력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들에서 학점 은행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산학연계와 관련한 실험 실습 강화, 견학 등을 수업방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9. 실습시간에 비례하여 이수하는 학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A : 3시간 짜리면 3학점인데 실습을 하기 위해 오전이면 오전 다 가고 오후에 들었으면 오후 만나절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비례해서 보면 적절한 것 같아요. 사실 실습 많이 하고 싶은데, 이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B : 실습시간에 비례해 학점은 적절한데 실습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습시간을 늘리고 학점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C : 그렇지요. 적절한 것 같아요.

실습시간에 비례하여 이수하는 학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연결해서 보면 실습시간 자체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다.

10. 기타 학점 은행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A : 정부에서 홍보를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군대 문제 때문에 학교 다닌다고 연장 신청하려면 대학이 아니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 확인 전화하면 연기된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전화하고. 모르는 학생들은 아예 연장 신청할 생각도 안 해요. 확실히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B : 지금도 좋지만 개선을 하자면 초청회나 견학 등 좀 더 현실적인 학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요.
- C : 학점 은행제 기관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 학습의 질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사회적인 홍보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졸업생이나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운영담당교사 모두 같은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는 개인적인 차원과 기관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졸업생이나 업체 관련자들을 기관에 초청하여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VI.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점 은행제 운영을 분석한 후 학점 은행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생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학점 은행제 운영 실태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학점 은행제도에 관하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술계 학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관련 학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41개의 표준교육과정으로 출발하여 2004년 현재 186개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기술계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학위대상자부터 교양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의 학위종류별 취득현황에서는 2002년 현재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등 IT분야 전공에 속한 공업전문학사가 3,762명으로 전체의 66.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학점 은행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은행제 참가 유형,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 기대정도와 만족도,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및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점 은행제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와 이미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학점 은행제를 수강 중인 응답자들 특성은 남녀비율에서 남성이 70.6%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2세 이하가 57.0%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90.0%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7.7%,

대졸이상은 1.4%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미혼이었고(95.7%) 가정의 월수입은 100-200만원이 3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학습과목의 주된 내용은 직업기술 전문교육이 가장 높게(81.4%)나타났으며 월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은 생계와 연결되는 직업기술 전문교육이 주된 내용인 반면 월수입이 많은 집단은 교양·문화교육이 주된 학습내용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 또한 취업·창업, 자격증 취득이 4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이 100-200만원인 집단에서 이러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 학점 은행제 참여 교육비에 관한 조사에서는 120만원이상이 가장 많았는데(37.6%)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44.4%), 대도시에서(45.7%)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부담 주체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9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정보매체로 인터넷(35.7%)이 가장 비중이 크고 주위 사람의 권유, 신문 및 광고, 직접 문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 과목이나 교육을 통하여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구직활동,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 학업이나 업무능력개선, 인간관계 개선, 사회변화에 적응, 사회활동에 참여, 교양함양, 여가선용의 순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 교수방법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교수방법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관련 정보 자료 제공,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비 수준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교육비 수준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보면 학점 은행제 참여시 교육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본인이나 가족이 95.4%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 때 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배경변인과 상관없이 학점 이수

후 사회적 인정도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6.6%)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받고 싶은 학습과목이나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직업기술, 전문교육이 과반수를 넘었는데(53.3%), 남성이(54.5%) 여성보다 직업기술 전문교육을 더 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1순위에 대한 조사에서 사회적 인정 증대가 4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중점사항 2순위에 관한 응답에서는 학점 은행제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3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운영자 면담결과 홍보수단과 관련하여 대부분 인터넷 홍보수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이할 점은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육과정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다. 실습관련 학습과목 개설 시 학생들의 수준차이로 인한 수업내용에 관한 수준조절, 즉 난이도 조절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면 학습과목 운영에 대해 학습자 수업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고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는 곳도 있다.

학습과목 평가인정과 관련하여서 실습을 위주로 전공과의 관련성, 현장의 활용도 정도, 취업과의 관련성, 고용촉진 훈련과의 상관관계, 교수요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중도 포기의 이유로 학생인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직장인 경우는 시간 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학위 취득 후 학위의 유용성에 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학생과의 면담결과 직무과 관련해 학점 은행제 전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학점 은행제는 직업생활 진입에의 최소한의 요건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라는데 면담자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공관련 과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 직무와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었다.

교육비 수준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앞에서 담당교사들과 현재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언급한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학생들은 학위취득에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학점 은행제 전공이나 학습과목,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 실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도있게 세분화하여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산업체와 연계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신감이 생기도록 실습을 많이 하길 바라고 있으며 직장자체에서 학점 은행제에 관해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직장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결론 및 제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산업구조는 지식경제로 전환되고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평생학습차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시행되는 학점 은행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점 은행제 관련 법률의 상호 연관성 증대가 필요하다.

2000년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평생학습 체제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우선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 수정·보완하고 확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실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강생 지원 및 기술계 학원에 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지원, 민간자격을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학점 은행제는 학습과목별로 교수요목이 결정되어 이를 평가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한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 은행제가 열린 평생교육체제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다. 특히 표준교육과정을 위주로 정해진 틀 속에서 규정에 관한 내용의 시행여부를 평가 인정하는 것보다는 학위취득 기관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요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평가 인정 받은 기관에 한하여서는 그 기관에게 교과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방학기

간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양과목 이수를 위한 대학의 다양한 수업 시간대 편성이 필요하다.

기술교육기관에서 전공교과목을 수강하지만 교양과목 수강을 위해 그 기관에서 교양과목 개설이 부족한 경우 인근대학에서 수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수업시간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주말과 야간 등의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격대학에서의 학점이수도 학점 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실습을 위주로 수업하므로 출석수업이 당연하지만 지역에 따른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공평한 분배와 장소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교육을 통한 학점인정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양과목분야에 이를 응용한다면 일반 대학에 개설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개설과목에도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대학처럼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제도 도입, 직장인 경우 소득공제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법률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하지만 재정적 이유로 인해 학점 은행제 참여를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지원비에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근로자에게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 수업료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점 은행제를 의미하는 ‘그에 준하는 학위취득기관’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의 상호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격증 학점 인정 방안을 사회적 유용성, 자격증간의 형평성, 학문분야와의 관련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학점 은행제의 자격증 분야 학점 인정에도 총량적인 학점부여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분야의 기사 1급 소지자가 대학의 몇 학점 이수자의 자질에 해당하는지, 또 어느 교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능력분야와 직업 능력 분야에서 각각 단일 기준을 세우고, 양 분야의 기준에 의하여 학업과 직업능력 분야가 어떻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통일된 기준은 필요하지만 이를 획일적인 규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다 융통성 있게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직업현장에서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학점 은행제를 통해 배움을 확대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이렇게 새롭게 익힌 전문지식을 바로 직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학점 은행제 관련 교육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점 은행제 운영기관과 산업체의 연계를 보면, 산업체 측에서 현장실습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견학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제공과 더불어 산업체와 교육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가능하다. 운영기관 측에서는 산업체의 기술전문가를 학교에 초청하여 초청강의를 통한 현장성 있는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생들과의 대담도 가능하며 산업체 근로자의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학점 은행제 운영기관과 정부부처 및 공공관련기관과의 연계는 행·재정적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특히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없이는 장기적인 연계가 가능하지 않다. 정부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지원할 때 학점 은행제는 안정적으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점 은행제에 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점 은행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학점 은행제 참여기관과 학위종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좋은 교육과정과 시설, 교육방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적극적인 홍보가 제도확산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매체 즉 신문, 방송, TV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학위가 없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사회적 인식도 향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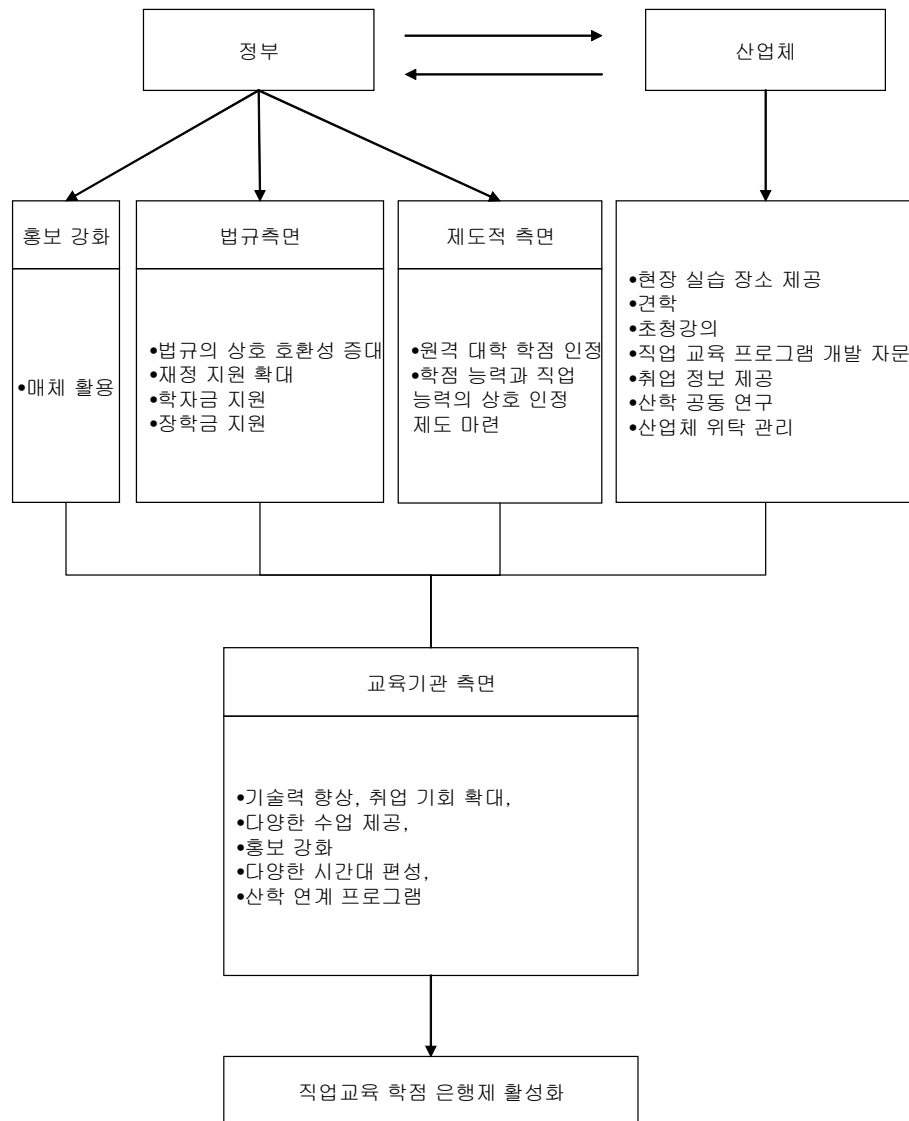
3.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 방안

이상으로 본 연구를 종합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VI-1] 과 같다.

이 모형은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원격대학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익힌 전문지식을 바로 직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장소를 제공, 견학, 산학공동연구, 산업체 위탁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정부와 산업체의 지원아래 학생들에게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평생고등교육체제로써의 학점 은행제는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림 VI—1]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 방안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무섭(2002). 「생애에 걸친 학습체제의 구축」.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1999). 「교육발전5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교육백서」.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표준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편람」.
김경희(2003). 「한국의 평생직업교육」. 서울:학지사.
김기홍(2002). 「학점은행제의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연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김기홍, 이현정(200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남선(2001). 「평생교육개론」. 서울:형설출판사.
김신일 외(1996). 「학점은행제 도입 및 실시방안」.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평생교육분과위원회.
김영화(1999). “OCED 국가의 노동시장 재구조화와 성인학습체제 개혁”. 「교
육학연구」. 37(2). 한국교육학회.
김종서 외(2000). 「평생교육개론」. 서울:교육과학사.
김종서(1996). 「평생교육 원론」. 서울:교육과학사.
김형만, 김철희(1999).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훈련 수요예측」.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권대봉(2001). 「평생교육의 다섯마당」. 서울:학지사.

- 권두승(1995). 「평생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 나영선(2003).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현황과 과제」. 교육인적자원부.
- 배장오(2003). 「평생교육의 이해」. 고양:서현사.
- 신군자(2003). “평생학습시대와 고등교육의 발전과제”. 「교육연구」. 38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375-406.
- (2002). “평생학습시대와 중등교육의 발전과제”. 「평생교육학연구」. 8(2). 한국평생교육학회. 79-97.
- (1999).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일과 학습의 연계”. 「교육사회학연구」. 9(3). 한국교육사회학회. 135-157.
- 오혁진(2000). “성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준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73). 「평생교육 세미나 보고서」.
- 이무근(1998).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직업·기술교육”.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서울:현대문학. 86-103.
- 이상오(2002).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훈련 체제 연구」. 서울:문음사.
- 이정표(2001). 「평생직업교육 훈련 종합대책(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장창원(1999). 「실업자의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경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혜(2000). “성인의 학습자 성장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종운,문영희(2003). 「평생교육개론」. 서울:홍익제.
- 장진호(1985).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대은출판사.
- 정인수 외(2000). 「99년 실업대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 정태화(2001).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배경”. 「직업과 인력개발」. 4(1). 한국
직업능력개발원.16-23.
- 주인중(2001). “직업교육기관과 훈련기관과의 연계방안”. 「직업과 인력개발」
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37.
- 진미석(1997). “교육과 산업체간의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의 경험을 중심
으로”. 「비교교육연구」. 7(1). 한국비교교육학회. 35-68.
- 차갑부(1998).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서울:양서원.
- (200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최상덕(2005). “영국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평생교육학
회 2005-1회 월례포럼. 1-22.
- 한승희(2003).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충.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탐색”. 제2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RM 2003-11.
27-62.
- 황치석(2005). “학점은행제 운영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연구”. 세종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법률>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법률 제6455호, 2001.3.28. 일부개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법률 제7073호, 1990.12.26)
-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 1997.3.10)
- ‘평생교육법’(법률 제6400호, 2001.1.29. 일부개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75호, 1997.1.13)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925호, 199811.19 개정)

<외국문헌>

- Bailey,B.(2002). Further education. In Aldrich, R.(ed). *A Century of Education*, London:Routledge.
- Barker,B.(2002). United Kingdom, *The 2002 KRIVE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23-232.
- CERI(1973). *Recurrent Education: A strategy for lifelong learning*. OECD.
- DFEE(1996). *Credit Guidelines, Models and Protocols*. South East England Consortium for Credit Accumulation and Transfer. DFEE.
- ILO(1976). *Workers' education and its techniqu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Jarvis,p.(2001). *Universities and Corporate Universities*. London : Kagan Page Limited.
- Knapper,K.K.,and Cropley,A.J.(2000).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London: Kogan Page.
- Kolb, D.A.(1984). *Experimental Learning :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Mary,J.K.& Mark, R.L.(1987), Student perceptions of college qualit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58.
- Skager,R & Dave,R.H.(1977). *Curriculum Evaluation for Lifelong Education*. Oxford : Pergamon Press.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 Trow,M.(1974).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in OECD.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Paris.
- OECD(1996). Lifelong learning for all..
- OECD(1996b). Evaluating and reforming education systems.
- OECD(1996c). The OECD job study.

OECD(1999). 성인학습을 통한 배제의 극복.

<Web문서>

뉴질랜드 교육부 www.tec.govt.nz/education_and_training

미국 교육부 www.ed.gov.

영국 교육부 www.dfes.gov.uk

영국직업교육 www.openquals.org.uk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cesi.kedi.re.kr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redit Bank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Park, Hyun Sook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resent Credit Bank System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o develop the new system for efficient operation. Moreover,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for enhancing adult education to alleviate the plight of the less educated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For that purpose, the present study surveys theoretical bases of the Credit Bank System, which include the theories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its international trend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System, its oper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New Zealand.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s type of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ose systems, student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ng in those systems, their satisfaction about major field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heir difficulties and wishes about programs by means of questionnaire surveys. Also, this study operates in-depth interviews of the teachers and graduates involving in those systems.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suggestions for the Credit Bank System on strengthening of vocational education are constructe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new Credit Bank Systems are:

First, Strengthening the inter-relations between laws on lifelong learning society is needed, emphasizing the financial support;

Second, Autonom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nhanced;

Third, Time schedules of lectures in universities for students should be flexible;

Forth,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like scholarship or loan for college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is essential;

Fifth, Academic credit should be given to the vocational achievement;

Sixth, Strengthening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industri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is essential;

Finally, Advertisement campaign for the Credit Bank System is needed.

부 록

<부록 1> 학점 은행제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학습자용)

<부록 2> 학점 은행제 운영 기관 운영자 심층 면담지

<부록 3> 학점 은행제 졸업생 심층 면담지

5. 귀하가 현재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보매체는 무엇입니까?

- 1)신문 및 광고전단
- 2)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 3)전화 및 방문면담
- 4)인터넷 또는 PC 통신
- 5)주위 사람의 권유
- 6)직접 해당기관에 문의
- 7)기타()

*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다음의 사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하십시오(6-14 번).

번호	내 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저 그렇다	조금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6	학업이나 업무능력개선					
7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8	여가선용					
9	구직활동(취업)					
10	사회변화에 적응					
11	교양함양					
12	사회활동에 참여					
13	새로운 기술환경에 접근					
14	인간관계 개선					

* 현재 학습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족도에 따라 V표를 하십시오(15-18 번)

번호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5	교수방법					
16	교육시설 및 장비					
17	교육관련정보자료제공					
18	교육비 수준					

19. 귀하가 학점은행제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1)교육활동에 참가할 시간 부족
- 2)경제적 부담
- 3)학점은행제에 대한 안내 및 정보 부족
- 4)본인에게 적합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부족
- 5)이수 후 사회적 인정도 문제
- 6) 기타 ()

20. 귀하가 앞으로 받고 싶은 학점은행제 관련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1)직업기술전문교육(자격증 취득 포함)
- 2)기초·교양·문화소양교육
- 3)취미·오락·여가교육
- 4)외국어 관련교육
- 5)기타 ()

21.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부분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순위별로 두 가지만 골라 1,2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1)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학습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부록 2>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운영자 심층면담지

안녕하십니까?

학점은행제가 직업세계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표준교육과정 내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반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 학점은행제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가 학점은행제의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바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신여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 현숙

- 운영측면 -

1.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어떠한 홍보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2.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수강료를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3.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강의에 쓰이는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십니까?
4.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은 교재를 교육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게 하십니까?

- 자원활용현황 -

5.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5-1. 있다면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 5-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운영·개발에 관하여 -

6. 학점은행제 실습관련 학습과목 개설시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7.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학습과목 운영에 대해 주기적으로 학습자 요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십니까?

7-1. 실시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7-2. 요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8.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에서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애로사항 -

9.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귀 기관의 학습자들이 도중에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0. 귀하가 생각하기에 학습자들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1. 학점은행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 3>

학점은행제 졸업생 심층면담지

1. 현재 직무와 관련해 학점은행제 전공과의 일치 여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2. 승진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3. 현 직무능력을 개선하는 정도는 전공관련 지식, 교양분야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4. 수강 시 교육관련 정보자료 제공과 현 직업세계와는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5. 교육비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전공이나 학습과목,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7. 학점은행제가 산업체와 연계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8. 귀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위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제도적 측면, 행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측면 등)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